

전략연구 2016-11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마을의 실태 및 정책 과제

조영재·박경철·김종화

발 간 사

충청남도는 민선5기부터 3농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이의 일환으로 기존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내발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주도의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이하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충청남도 자체적인 추진모형을 구축하고, 이는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정책의 벤치마킹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가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이제까지 추진된 마을만들기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새롭게 전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마을만들기가 향후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해 2012년과 2013년에 육성된 마을을 대상으로 전체 508개 마을에 대한 주민 의식조사와, 4개 시·군 12개 마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또한 '체계적인 마을관리시스템 도입', '마을리도 및 인적자원 유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기반 마련' 등의 의미있는 정책과제를 제언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의 제언한 내용들은 향후 충청남도에 적용하고 시도해볼만한 시의성 높은 정책과제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위해 연구책임자로 수고하여 주신 조영재 연구위원을 비롯한 박경철 책임연구원, 김종화 책임연구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적인 노력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1. 배경 및 목적

충청남도에서는 2012년부터 주민주도의 내발적 발전의 모델로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이하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역량의 유형에 따라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로 구분하여 단계별 마을만들기를 추진중에 있다.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700여개의 마을이 새롭게 발굴되고 육성되었다.

충청남도가 마을만들기를 추진한지 5년차에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볼 때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발굴되고 육성된 마을에 대한 중간 실태점검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2012년 이후 4년 동안 새로운 마을이 발굴되고 육성되어 왔는데, 이들 마을이 체계적으로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고,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개선해나가고 새로이 도입해야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통하여 육성된 마을의 실태를 점검하여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 현황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649개 마을이 육성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색깔있는마을만들기(현장포럼)와 통합하여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5,719백만 원이 투자되었고, 동기간 동안 현장포럼을 통해서 168개 마을에 총 1,317백만 원이 투자되었다. 또한, 우수마을지원 및 소규모 선행사업을 통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173개 마을에 4,375백만 원이 투자되었다.

3.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주민 의식조사

2012년과 2013년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해 육성된 508개 마을에 대해 주민 의식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우선 대상마을은 실제 거주인구 100명 이하의 마을이 33.3%로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평균 58.9%로 과소화·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마을만들기와 같은 마을 활성화의 계기가 필요한 마을들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추진한 이 후, 99.0%의 마을이 마을 스스로의 자체 마을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도 82.2%에 달했다. 반면, 전혀 추진실적이 없는 마을은 0.4%(2개 마을)에 불과하여,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계기로 대부분의 마을에서 활성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마을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 마을변화에 대해 73.8%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변화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21.3%를 보였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4%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반면 불만족의 의견은 2.0%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마을이 향후 마을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원하고 있다(69.1%). 넷째,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제약이 되는 사항이나 애로사항으로는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31.6%)’을 가장 높게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부족(18.8%)’,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의지 부족(16.8%)’, ‘마을주민의 역량 및 경험 부족(14.1%)’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예산 마련과 지원 확대(31.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마을역량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관리(25.7%)’, ‘마을만들기 전담 공무원 배치(18.7%)’, ‘마을사업 등 마을만들기 정보의 One-stop 제공 전담부서 또는 창구의 마련(16.8%)’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현장 실태조사

2012년과 2013년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해 육성된 마을중 12개 마을을 선정하여 현장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우선 마을만들기 추진이 우수한 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의 현장실태조사 결과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우수마을은 마을학교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가 우수 또는 매우 우수하였으며, 마을발전계획서의 테마도 체험소득, 경관환경, 문화복지 등 비교적 명확한 테마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된 반면, 비우수마을은 주민들의 참여도가 대체적으로 불량하고, 마을발전계획서의 테마 역시 대체적으로 단순한 농업소득이나 기초생활환경정비 등 숙원사업에 맞춰 작성이 되었다. 둘째, 마을만들기를 중도에 포기한 마을이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주민간의 갈등 및 불신'과 '즉각적인 후속사업의 부재'를 들고 있다. 셋째, 마을만들기 추진에 있어 정책건의 사항으로는 마을리더나 중요 인력에 대한 지원, '체계적인 마을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추진위원장과 이장 등의 추진주체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지침이나 매뉴얼 개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5.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과 및 문제점

주민 의식조사와 현장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과로는 첫째, 그동안 소외되었던 과소·고령마을이 대상마을로 선정되고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마을발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 그리고 마을발전의 미래상을 갖도록 함으로써 마을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마을발전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동기부여 및 주민 참여도 확대, 주민역량의 증가 등 마을의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 셋째, 마을사업의 경험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진입장벽을 허물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넷째,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대상마을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마을이 향후 마을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원하는 높은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벤치마킹되고, 중앙정부의 마을사업 선정과 국비확보에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타시도 등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추진에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과 시군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을 성과로 들 수 있다.

한편,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과와 함께 향후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는 첫째,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마을의 인적자원 부족하다는 점과 대부분의 마을 이장 또는 추진위원장 등의 마을 리더가 보수가 없는 희생과 봉사로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주민 갈등의 문제는 마을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고, 마을만들기 추진의 제약요인

으로 여전히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의지 부족, 마을주민의 역량 및 경험 부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마을만들기 추진 당시에는 참여주민의 마을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이후 바로 후속사업이 없음으로 인하여 실망감이 커지고 이후 참여율 저조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있다. 넷째, 마을만들기의 궁극적인 목적을 과도하게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칫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이 소홀해지고 과도한 경쟁위주의 마을만들기로 퇴색될 우려가 있다. 다섯째, 마을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 처음부터 무조건 외부역량에 의존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내부역량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기존의 공공주도 하향식 개발방식을 답습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마을만들기의 취지를 퇴색시키게 된다. 여섯째, 충청남도의 마을만들기가 아직까지는 지자체의 정권 교체 또는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시군에서 충남도의 마을만들기 추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6. 정책제언

향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마을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모든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 또한, 향후 마을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성과평가)를 도입하고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대상마을의 합리적인 선정과 마을사업 성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어촌마을에 마을리더 및 인적자원의 유치가 필요하다. 우선 마을이장, 추진위원장 등 마을리더에 대한 지원방안과 '사무장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을사업 리더(CEI) 공모제도'를 리더(CEO)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귀농귀촌 인큐베이팅, 빈집과 휴경지 등 주택 및 토지(농지 등) 제공 또는 알선하는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인적자원을 적극 유치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시군자체적인 예산확보 및 운용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모형을 구축하도록 하고, 마을만들기 참여주체의 범주를 확대함과 동시에 민간영역의 네트워킹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인큐베이팅 하도록 하고,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조직으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되도록 한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4
1) 주요 연구내용	4
2) 연구방법	5
제2장 이론적 고찰	7
1.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개요	7
1) 추진배경 및 추진모형	7
2) 추진현황	12
2. 선행연구	15
제3장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주민 의식조사	22
1. 조사개요	22
2.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주민 의식조사 결과	24
1) 응답자 속성	24
2) 마을 일반현황 및 마을만들기 인지도	25
3) 마을만들기 추진 경위 및 마을의 변화	27
4) 향후 계획 및 정책과제	32
3. 소 결	39
제4장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현장 실태조사	42
1. 조사개요	42
2.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현장 실태조사 결과	45
1) 공주시	45

2) 논산시	50
3) 청양군	55
4) 홍성군	59
3. 소 결	64
제5장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과 및 정책과제	66
1.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과 및 문제점	66
1) 마을만들기의 성과	66
2) 마을만들기의 문제점	73
2.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정책과제	79
1) 체계적인 마을관리시스템의 도입	79
2) 마을리더 및 인적자원의 유치	86
3)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기반 마련	8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4
1. 요약 및 결론	94
2. 정책제언	97
3. 연구의 한계	99
참 고 문 헌	100
부록 : 주민의식조사표	102

표 목 차

<표 2-1>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현황	13
<표 2-1>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현황(계속)	14
<표 3-1>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주민 의식조사 개요	23
<표 3-2> 응답자 속성	24
<표 3-3> 마을 실제 거주인구, 가구 수, 65세 이상 인구 수	25
<표 3-4> 마을 인구규모 변화	26
<표 3-5>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인지도	26
<표 3-6>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여부 인지	26
<표 3-7> 마을만들기 참여 여부	27
<표 3-8>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	27
<표 3-9>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 자체 추진한 사업	28
<표 3-10>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	28
<표 3-11> 마을발전계획서 내용 인지	29
<표 3-12> 마을발전계획서 실현 여부	29
<표 3-13> 마을발전계획서 내용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	29
<표 3-14>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 마을 변화	30
<표 3-15>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의식 변화	30
<표 3-16>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 단합과 참여도 변화	31
<표 3-17> 마을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변화	31
<표 3-18> 마을만들기가 마을 활성화 도움 정도	31
<표 3-19> 마을만들기 추진의 제약	32
<표 3-20> 향후 마을 변화	32
<표 3-21> 마을만들기 지속 추진 여부	33
<표 3-22> 향후 마을만들기 주된 테마	33
<표 3-23> 향후 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할	34
<표 3-24> 현재 마을만들기 추진에 대한 만족 여부	34

<표 3-25> 마을만들기 만족 이유 (상위 5위)	35
<표 3-26>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우선 과제	35
<표 3-27> 행정의 역할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과제	36
<표 3-28>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36
<표 3-29>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한 이유(상위 5위)	36
<표 3-30>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37
<표 3-31>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관리 주체	37
<표 3-32>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건의사항(상위 5위)	38
<표 4-1>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현장 실태조사 개요	44
<표 4-2>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공주시 대상마을 현장 실태조사 결과	49
<표 4-3>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논산시 대상마을 현장 실태조사 결과	54
<표 4-4>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청양군 대상마을 현장 실태조사 결과	58
<표 4-5>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홍성군 대상마을 현장 실태조사 결과	63
<표 5-1> 마을만들기 추진에 따른 농어촌 마을 유형별 모니터링 기본방향	81
<표 5-2> 단계별 마을육성 및 마을사업 기회 제공 개요	84
<표 5-3> 마을사업 평가 및 환류 개요	86
<표 5-4> 인적자원의 활동비 및 인건비 지원 개요	87
<표 5-5> 우수한 인적자원 유치 개요	89
<표 5-6> 시·군 자체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확립 개요	90
<표 5-7> 민간영역의 마을만들기 주도 확대 개요	92
<표 5-8>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 정착 개요	93

그림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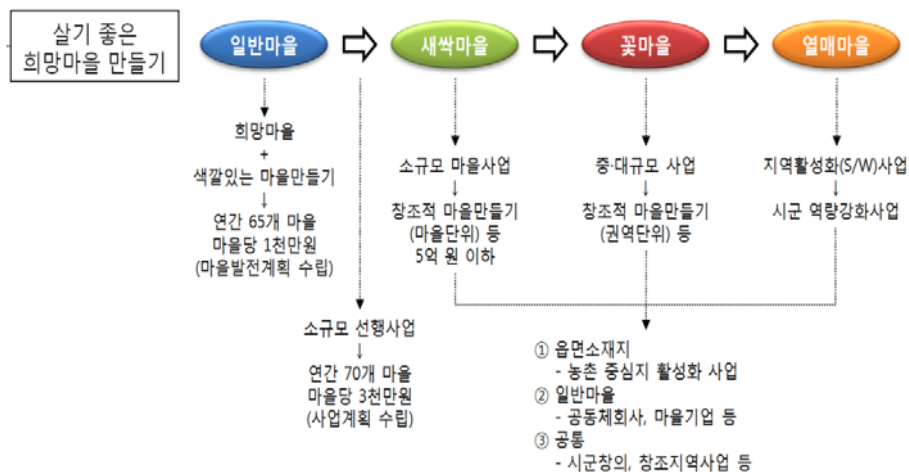
<그림 1-1>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모형	1
<그림 1-2> 창조적 마을만들기 단계별 추진체계	2
<그림 2-1>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비전 및 목표	8
<그림 2-2>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마을유형 구분	9
<그림 2-3>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최초 추진모형	9
<그림 2-4>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최종 추진모형	11
<그림 2-5>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모형	12
<그림 4-1> 공주시 봉현리 농경문화자료관(좌) 및 물레방아(우)	47
<그림 4-2> 논산시 채운2리 마을안내 시설	50
<그림 4-3> 홍성군 수란리(반교마을) 주민이 직접 만든 우체통 및 문패	59
<그림 4-4> 홍성군 효학리(하계마을) 전경(좌) 및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계획도(우)	61
<그림 5-1>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과	66
<그림 5-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단계별 추진체계	68
<그림 5-3>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마을발전계획 수립내용에 대한 만족도	70
<그림 5-4>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	70
<그림 5-5>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만족도 및 지속적인 추진 의지	71
<그림 5-6>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 모형	72
<그림 5-7>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문제점	73
<그림 5-8>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대상마을의 향후 마을만들기 주요 테마	76
<그림 5-9>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대상마을의 향후 마을만들기 희망 테마	76
<그림 5-10>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정책과제	79
<그림 5-11> 마을 모니터링 및 관리 개념도	81
<그림 5-12> 농어촌마을의 다양한 인증 사례	82
<그림 5-13> 마을만들기 유형별 주민교육 프로그램 예시	83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농정의 방향이 농업에서 농촌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내발적 지역발전, 주민참여 및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촌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마을만들기’를 들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2012년부터 주민주도의 내발적 발전의 모델로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이하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역량의 유형에 따라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로 구분하여 단계별 마을만들기를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모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색깔있는마을(현장포럼)과 소규모 선행사업 추진, 단계별 마을육성 정책(창조적 마을만들기)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그림 1-1〉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모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그림 1-2> 창조적 마을만들기 단계별 추진체계

충청남도는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700여개의 마을이 새롭게 발굴되고 육성되었다.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2012년 258개 마을, 2013년 250개 마을, 2014년 140개 마을, 2015년 63개 마을 등 2015년 현재까지 총 711개 마을이 육성되었다(2015년부터는 마을학교 운영과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던 희망마을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현장포럼과 통합하여 추진되고 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현장포럼(색깔있는 마을)을 통하여 매년 65개 마을(마을당 1천만원 지원), 소규모 선행사업을 통하여 연간 70개 마을(마을당 3천만원 지원)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예정이며, 이들 마을은 소규모 및 중·대규모 사업이 단계적으로 지원 육성되는 체계로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가 마을만들기를 추진한지 5년차에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볼 때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발굴되고 육성된 마을에 대한 중간 실태점검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2012년 이후 4년 동안 새로운 마을이 발굴되고 육성되어 왔는데, 이들 마을이 체계적으로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고,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개선해나가고 새로이 도입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통하여 육성된 마을의 실태를 점검하여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추진 개황, 대상마을의 현장 실태 조사, 대상마을의 주민의식 조사를 통하여 마을만들기 추진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다양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1) 이론적 고찰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개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현황 조사 (행정 협조)

2012년부터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해 육성된 대상마을에 대한 현황조사를 충남도 및 시군 행정의 협조를 통해 실시한다. 현황조사는 시군별 대상마을, 마을별 마을만들기 추진연도 및 추진내용, 이 후 단계별 사업추진 현황(기간, 사업내용 및 사업비 재원, 규모 등), 기타 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해 실시한다.

(3)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주민 의식 조사 (전수조사)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하되, 마을당 1~2명의 리더를 대상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과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주민 의식 조사는 세부적으로 ① 마을 일반현황 및 마을만들기 인지도, ② 마을만들기 추진배경 및 마을의 변화(마을만들기 성과 및 문제점), ③ 마을만들기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④ 기타 정책건의 등에 대해 설문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현장 실태 조사 (사례조사)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현황 조사결과 및 주민 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마을을 선정(시군별 2개 내외의 마을로 총 30여개 마을 선정)하여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 실태 조사 대상마을은 충남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마을만들기를 통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마을과 그렇지 못하는 마을을 적절히 안배하고, 연도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현장 조사는 주민 의식 조사 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현장방문 상세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마을만들기 추진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한다.

(5)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성과 및 문제점 도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현황 조사, 대상마을 주민 의식 조사 및 현장 실태 조사 등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2012년부터 마을만들기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충남연 '13년, '14년 현안과제)와 연계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구체적인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6)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개선과제 및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결과, 특히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고 향후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개선과제 및 정책방안을 제언한다.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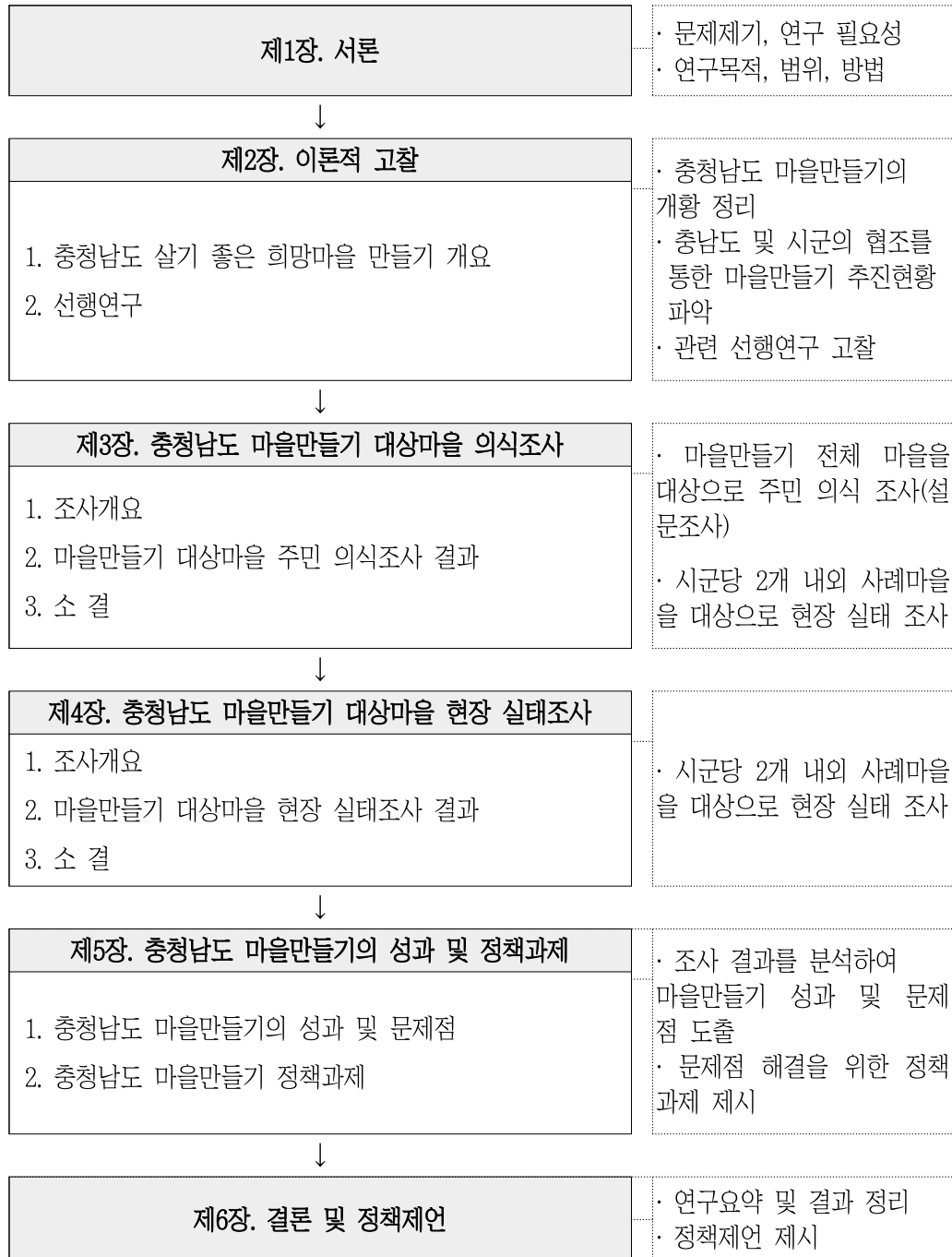
(1) 공무원 등 관련주체의 참여 및 전문가 협력 연구

충남도 및 시군의 권역사업 담당자의 참여와 협조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농어촌 주민,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에 의한 세미나, 워크숍, 자문회의 등의 개최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

(2) 현장밀착형 연구

현장방문 및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실제 농어촌 마을에서의 실태 및 성과,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며, 사례연구 지역을 선정하여 현장조사 및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고찰

1.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개요¹⁾

1) 추진배경 및 추진모형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이하 충청남도 마을만들기)가 추진이 논의된 것은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 하반기 무렵으로, 논의의 배경은 주로 기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추진체계에 대한 요구가 바탕이 되었다. 즉, 기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주민주도가 아닌 공공주도, 지속가능성의 취약, 다양한 유사사업의 개별적 추진, 파급효과 미흡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내발적 지역발전 및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어촌개발 요구에 대한 대응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사람 및 주민중심, 주민자치의 마을조성’을 주요 시책으로 제시하고, 이 후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추진모형 구축(2011년)과 함께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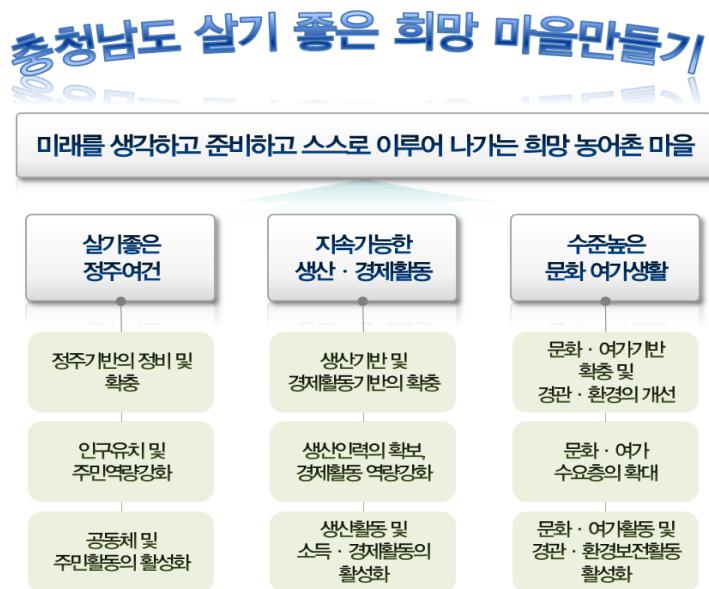
특히,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은 당초 다음의 4가지를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주민 중심의 충남형 농어촌개발(마을만들기) 추진이다. 기존의 정부나 행정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를 탈피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 추진과, 천편 일률적인 마을개발 틀을 벗어나 마을의 실정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마을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둘째,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의 정비 및 효율적 사업추진이다. 농어촌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마을만들기’로 일원화 하여 융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주도-행정지원’의 상향식 마을개발을 실천하는 것이다. 셋째,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마련이다. 소외된 마을과 주민들에게 스스로의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만들기

1) 충남연구원 2011년 전략연구과제 「충청남도 희망 농어촌마을 만들기의 추진모형 및 실천전략」와 충청남도 내부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정리함

참여를 유도하고, 기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마을은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넷째, 전국적인 성공모델 구축 및 국비확보 기여이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전국적인 우수모델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중앙정부 국비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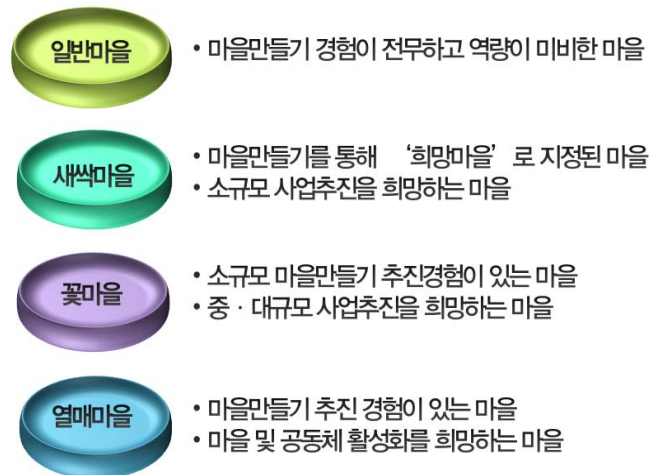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추진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비전은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희망 농어촌 마을', 목표로는 '살기 좋은 정주여건', '지속가능한 생산·경제 활동', '수준 높은 문화·여가 생활'의 3가지가 설정되었다.



자료 : 충남연구원 2011년 전략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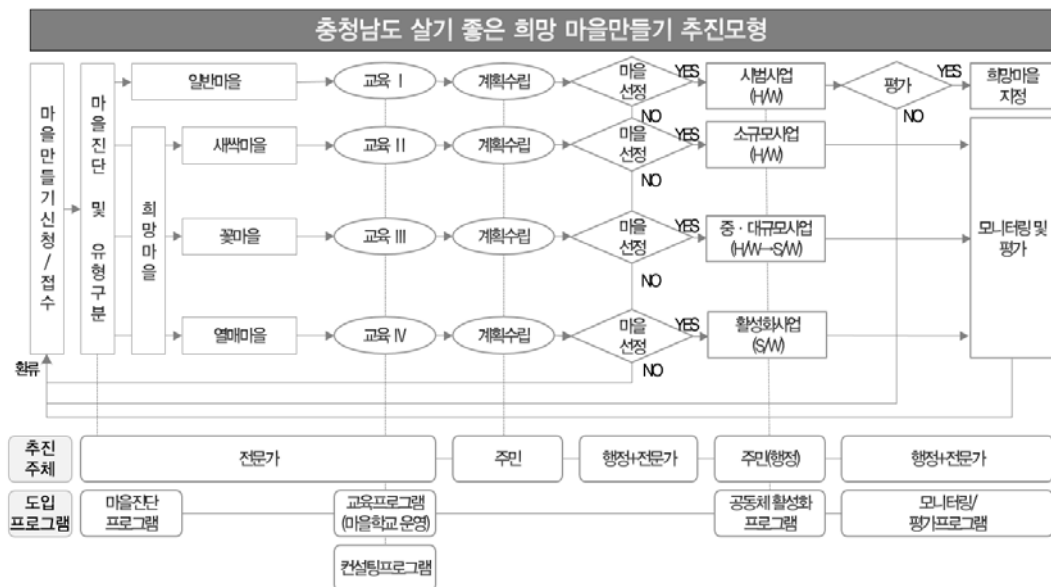
〈그림 2-1〉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비전 및 목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우선, 마을을 각 마을의 역량에 따라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로 구분하고, 마을의 역량별 유형구분에 의한 맞춤형 마을만들기를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마을'은 "마을만들기 경험이 전무하고 역량이 미흡한 마을", '새싹마을'은 "마을만들기를 통해 '희망마을'로 지정된 마을로 소규모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마을", '꽃마을'은 "소규모 마을만들기 추진경험이 있는 마을로 중·대규모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마을", '열매마을'은 "마을만들기 추진 경험이 있는 마을로 마을 및 공동체 활성화를 희망하는 마을"을 의미한다.



자료 : 충남연구원 2011년 전략과제

〈그림 2-2〉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마을유형 구분



자료 : 충남연구원 2011년 전략과제

〈그림 2-3〉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최초 추진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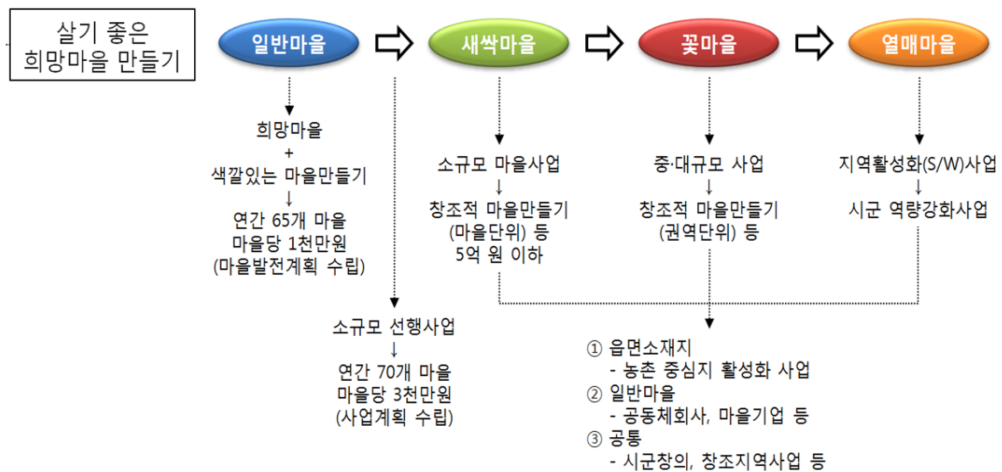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최초 추진모형은 ① 마을만들기 추진의지가 있는 모든 마을에 대해 신청을 받고, ② 마을만들기를 신청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진단을 실시하고 마을유형을 구분하며, ③ 유형별 마을만들기를 마을학교를 통한 ‘주민교육’ → ‘계획수립’ → ‘사업 대상마을 선정’ → ‘사업추진’의 순으로 진행되는 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④ 마을만들기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사업완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마을만들기 추진에 환류·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2012년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최초 시범사업으로 일반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추진을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학교’를 운영을 통해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발전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특히, ‘마을발전계획서’는 첫째, 침체되어 있는 마을에 마을발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마을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둘째,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마을발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마을발전계획서’ 수립은 ① 계획수립은 2차적인 목적이고 1차적인 목적은 주민을 변화시키는 것임, ② 주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과 전문가는 자문 또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컨설팅업체가 참여할 경우 주민주도 계획 수립의 취지는 반드시 고수, ③ 계획수립과 마을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마을은 자율적으로 마을만들기 참여 배제, ④ 가능한 많은 수의 주민이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함께 토론과 의견 개진 유도, ⑤ 마을발전계획은 사업계획이 아닌 마을발전에 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일반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발전계획서를 수립하는 마을만들기가 매년 지방비로 추진되었고, 2015년부터는 농식품부 색깔있는 마을만들기와 통합하여 추진되고 있다. 사후평가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마을만들기 이후 평가를 통해 우수마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마을에서 신청하거나 시군의 추천을 받아 소규모 선행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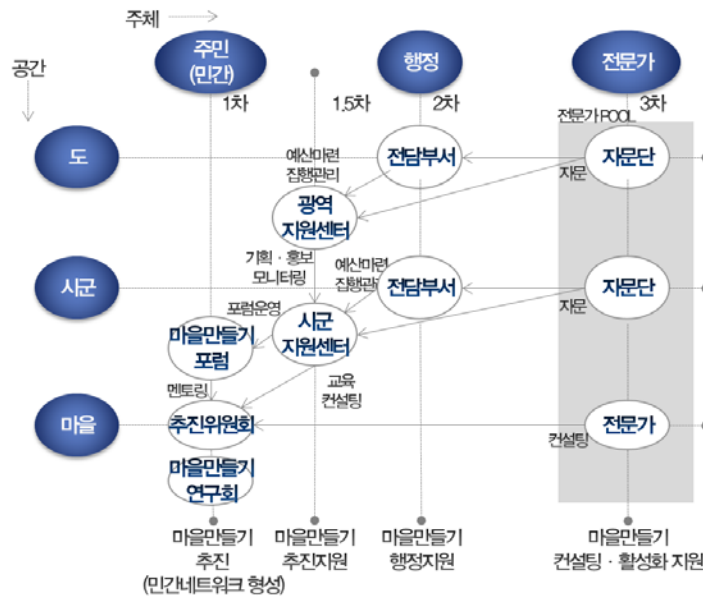
2012년부터 시작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가 해년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종 완성된 추진모형은 다음 <그림 2-1>와 같다. 즉, ‘일반마을’은 농식품부 색깔있는 마을만들기와 통합하여 연간 65개 마을에 마을당 1천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이렇게 육성된 마을에 대해 본격적인 마을사업 추진에 앞서 연간 70개 마을에 마을당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소

규모 선행사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싹마을’은 소규모 마을사업(창조적 마을만들기 5억 원 이하 마을단위 사업), ‘꽃마을’은 중·대규모 사업(창조적 마을만들기 5억 원 초과 권역단위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며, ‘열매마을’은 마을사업 추진에도 활성화되지 못한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 사업이나 다양한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4〉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최종 추진모형

한편, 최근에는 이러한 마을만들기를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의 노력이 2015년부터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군 마을만들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융복합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행정시스템을 개편하고, 민간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조직, 기관단체들의 육성 및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고 마을만들기 추진을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특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하여 2015년 5개 시·군(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 2016년 4개 시·군(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총 5개 시군에서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진행 중에 있다.



자료 : 충남연구원 2011년 전략과제

〈그림 2-5〉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모형

2) 추진현황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같은 해 258개 마을, 2013년 250개 마을, 2014년 141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가 추진되어 총 649개 마을이 육성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색깔있는마을만들기(현장포럼)와 통합하여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는 2012년에는 마을당 7백만 원이 지원되어 총 1,729백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마을당 1천만 원으로 지원예산이 확대되어 2013년 2,500백만 원, 2014년 1,490백만 원이 투자되었다. 현장포럼을 통해서 2012년 5개 마을, 2013년 47개 마을, 2014년 58개 마을, 2015년 58개 마을이 육성되고 총 1,317백만 원이 투자되었다.

한편, 우수마을지원 및 소규모 선행사업으로는 2012년 7개 마을에 460백만 원, 2013년 50개 마을에 991백만 원, 2014년 51개 마을에 974백만 원, 2015년 65개 마을에 1,950백만 원이 지원되어, 4년간 173개 마을에 4,375백만 원이 투자되었다.

〈표 2-1〉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현황

(단위 : 개소수, 백만 원)

시군명	추진년도	마을학교		선행사업(우수마을)		현장포럼	
		마을수	사업비	마을수	사업비	마을수	사업비
충청남도	2012년	258	1,729	7	460	5	33.5
	2013년	250	2,500	50	991	47	314.9
	2014년	141	1,490	51	974	58	388.6
	2015년	0	0	65	1,950	58	580
	계	649	5,719	173	4,375	168	1,317
천안시	2012년	10	70	1	20	-	-
	2013년	10	100	4	74	5	33.5
	2014년	10	100	3	55	4	26.8
	2015년	-	-	3	120	2	20
	계	30	270	11	269	11	80.3
공주시	2012년	20	140	1	80	1	6.7
	2013년	20	200	7	134	4	26.8
	2014년	11	110	8	155	4	26.8
	2015년	-	-	9	300	5	50
	계	51	450	25	669	14	110.3
보령시	2012년	14	21	1	80	-	-
	2013년	14	140	5	70	3	20.1
	2014년	10	100	5	120	2	13.4
	2015년	-	-	11	320	5	50
	계	38	261	22	590	10	83.5
서산시	2012년	19	133	1	50	-	-
	2013년	19	190	2	34	3	20.1
	2014년	6	60	6	95	3	20.1
	2015년	-	-	5	130	4	40
	계	44	383	14	309	10	80.2
아산시	2012년	21	147	-	-	-	-
	2013년	20	200	3	54	2	13.4
	2014년	11	110	3	55	5	33.5
	2015년	-	-	5	150	4	40
	계	52	457	11	259	11	86.9
논산시	2012년	28	196	1	80	-	-
	2013년	25	250	-	-	1	6.7
	2014년	12	120	-	-	8	53.6
	2015년	-	-	5	150	5	50
	계	65	566	6	230	14	110.3
계룡시	2012년	3	21	-	-	-	-
	2013년	3	30	3	54	2	13.4
	2014년	3	30	1	30	2	13.4
	2015년	-	-	1	30	-	-
	계	9	81	5	114	4	26.8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표 2-1〉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현황(계속)

(단위 : 개소수, 백만 원)

시군명	추진년도	마을학교		선행사업(우수마을)		현장포럼	
		마을수	사업비	마을수	사업비	마을수	사업비
당진시	2012년	17	119	-	-	1	6.7
	2013년	17	170	3	54	4	26.8
	2014년	4	40	3	85	4	26.8
	2015년	-	-	4	120	3	30
	계	38	329	10	259	12	90.3
금산군	2012년	16	112	-	-	-	-
	2013년	16	160	3	126	4	26.8
	2014년	10	100	4	40	3	20.1
	2015년	-	-	2	60	1	10
	계	42	372	9	226	8	56.9
부여군	2012년	29	203	1	50	1	6.7
	2013년	25	250	5	54	3	20.1
	2014년	12	120	5	55	4	26.8
	2015년	-	-	6	150	5	50
	계	66	573	17	309	13	103.6
서천군	2012년	15	105	-	-	1	6.7
	2013년	14	140	3	45	3	20.1
	2014년	10	100	3	104	4	26.8
	2015년	-	-	3	90	5	50
	계	39	345	9	239	13	103.6
청양군	2012년	14	98	-	-	-	-
	2013년	14	140	3	86	3	20.1
	2014년	10	100	1	35	3	20.1
	2015년	-	-	3	90	4	40
	계	38	338	7	211	10	80.2
홍성군	2012년	21	147	1	100	1	6.7
	2013년	22	220	3	66	2	13.4
	2014년	12	120	2	20	4	26.8
	2015년	-	-	1	30	5	50
	계	55	487	7	216	12	96.9
예산군	2012년	17	119	-	-	-	-
	2013년	17	170	3	54	3	20.1
	2014년	10	180	4	70	4	26.8
	2015년	-	-	2	60	5	50
	계	44	469	9	184	12	96.9
태안군	2012년	14	98	-	-	-	-
	2013년	14	140	3	86	5	33.5
	2014년	10	100	3	55	4	26.8
	2015년	-	-	5	150	5	50
	계	38	338	11	291	14	110.3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2. 선행연구

우리나라 마을만들기는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중앙정부의 하향식 지역개발정책에서 탈피해 주민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지역개발 방식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아 정부 차원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민간의 역량이 축적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된 마을만들기는 또 다른 행정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변질되기 십상이었다. 또한 지역의 물리적 환경 조건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큰 틀에서는 기존의 지역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중앙과 지역에서 실험되고 추진되어온 마을만들기 사업은 작은 크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민간의 의견과 협력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역개발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력과 지원이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풀뿌리 지역개발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지역개발사업은 정부 중심의 하향식 개발사업이 많았다. 주민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중대 규모의 사업을 지역에 유치해야 지역이 발전될 것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작지만 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이 더 필요로 하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도시 지역만들기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대구시 담장허물기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풀뿌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작은 마을단위까지 신경을 쓰게 되었고 이러한 마을에서 활동하는 민간 주체들과의 협력을 강구하게 시작했다.

세 번째는 마을만들기에서 마을공동체성과 역량의 중요성의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다. 지역 내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혹은 마을 내 사업에 대한 공감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뿌리 내리기 어렵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수준이 향상이 되어야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에서 주민 역량 강화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을 간 협력과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중요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많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이러한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지속가능하게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 내 협력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혹은 마을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들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많은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이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야만 마을만들기가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방자치체의 시행과 함께 민관이 협력해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성과도 거두었으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도 안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과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분석이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 광주시, 부산시, 충청남도, 강원도, 전남도, 전북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진안군, 완주군, 안산시, 시흥시, 아산시, 홍성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지자체들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영재·윤정미·조은정(2011)은 “충청남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의 추진과제”에서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 조성 등을 위해 충청남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모델 및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1)충남형 마을만들기 개념 정립, 2)충남형 마을만들기 모델 개발, 3)주민 동기부여와 추진주체의 역량강화, 4)마을만들기의 안정적인 추진기반 마련, 5)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의 추진을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은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적 지원 방안 연구”에서 강원도 18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방안으로 첫째, 현행 중앙 및 광역, 기초단위의 자치단체에서 시작되는 다양한 형태의 조례 및 중간지원조직 등에 대해 체

계화된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둘째,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위한 지원방식의 심층적 분석을 통한 공동체 역량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으로 지역기금 등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의 마련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향후 효과적 시행과 더불어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단위와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책무를 제시하고 강원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왕기 등(2013)은 인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추진 주체의 활동 유형 및 특성 도출” 연구에서 인천시 관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민간영역의 20개 마을만들기 사례의 추진 과정, 조직 구성, 활동 유형, 공공과의 관계 등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마을만들기 조직이 공익적 활동에서 비롯됐으며, 공공 공간을 기반으로 주민이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패턴으로 발전해 왔고, 특정 활동 중심에서 마을 성장과 경제 활성화 등 공동의 관심사를 위한 노력으로 다변화 해 온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도시재생 등을 통한 도시의 마을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승욱(2013)은 “부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에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개괄하고 이를 토대로 광역지자체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에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위계의 문제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형성된 공공자산의 관리운영의 문제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종화·장준호(2012)는 안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에서는 그동안 주민운동의 한 형태로 전개되어온 마을만들기 선진사례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들의 실정과 부합되어 왔으며 향후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향후 전개되어야 할 마을만들기 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모색했다. 그 가운데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예산 및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련의 과정은 개인의 노력이나 일시적 사업에 의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활동과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전개를 위해서는 활동지원 방식

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 우리의 현실과 여건에서 사업지원 역시 적절히 투입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일시적 성과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자인(2007)은 “주민주도 상향식의 농촌 마을 만들기, 전라북도 진안군의 경험” 연구에서 우리나라 농촌 마을만들기의 몇 가지 실천 경험을 소개하고 진안군 마을만들기 실천 경험을 통해 정말로 농촌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마을단위, 주민주체, 상향식 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런 방식의 개발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둘째, 마을에 존재하는 주민 공동영역(Commons)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과 행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할 경우 대도시 유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내부의 순환체계(지역자급)를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국, 그는 농촌의 풀뿌리 마을 기반이 강화될 때 농업과 농촌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들어 각 지자체마다 도시재생 및 농촌마을 회생을 위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나오고 있다. 박주형(2012)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마을’이나 ‘공동체’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낭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의 이러한 사업이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저항하는 ‘해방적 정치’라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정치기획의 일환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른바 ‘공동체를 통한 통치(governance through community)’를 작동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성행되고 있는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줄곧 ‘관제화’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통해 마을만들기의 본래적 개념과 취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마을만들기와 거버넌스 관련 연구이다. 여기서 거버넌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주민의 참여, 민관협력, 마을 간 연계와 협력, 주민의 역량, 중간지원조직 등이 포함된다. 즉,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협력적 네트워크와 역량 강화를 거버넌스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됐다.

먼저, 고용광(2014)은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를 사례로 한 “자치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비교연구”에서 서울시의 두 자체구의 마을공동체 육성 네트워크를 비교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성과가 네트워크 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성북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활성화와 핵심행위자의 중심성 비교 모두에서, 성북구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활동과 참여 및 정보공유를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중개자 역할을 통해 더 높은 밀도와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도형보다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같은 전담조직을 두고 중간지원조직 주도형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도희·하상근(2013)은 지역재생을 위한 ‘지붕 없는 미술관’ 신화마을 조성사업을 사례로 한 “울산광역시 남구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추진 실태분석에 따른 성공요인과 정책적 효과 분석”에서 민관협력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일치, 정부와 주민의 열정과 의지,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업 추진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재정적인 측면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사업추진 관련 전담부서, 조례의 제정, 예산 확보, 담당인력의 전문성, 민관협력체 구축 등은 기본적인 사안이지만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희(2015)는 “부산시와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 “굿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대도시의 주민참여행정 비교연구”에서 지방정부들이 거버넌스를 표방한 ‘마을만들기’를 주요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주의에 치우쳐 형식적 거버넌스에 그치거나,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정책을 역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부산시와 서울시 두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각 정책단계에서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산시는 ‘형식적 거버넌스’, 서울시는 ‘불안정한 거버넌스’의 특징을 보였으며 향후 굿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과 기초·광역 도시계획과 연계’, ‘의제설정부터 평가·환류까지 모든 단계의 주민참여 실질적 보장’, ‘훈련된 마을시민 육성을 위한 자치역량강화 교육 확대’를 제시했다.

세 번째는 해외 마을만들기 사례 관련 연구이다. 사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오랜 주민자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구 유럽과 이를 일찍 받아들인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이웃한 일본의 사례와 경험은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기도 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일본 마을만들기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고 한일 간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영역과 결합 또는 융합되면서 새로운 방향이 모색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도선봉·신창훈(2009)은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실행주체별 전략구축에 관한 연구”에서 쾌적한 삶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아직 체계적이고 생활 깊숙이 자리 잡지 못한 단계라 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해 향후 전개되어야 할 마을만들기 운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모색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는 일본에 비해 합의형성의 문화 및 분권화의 수준이 미흡하고, 행정의 지원제도가 취약한 실정에서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체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과 재원 및 체계적인 교육지원 등 관리주체의 지위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허남혁·김종수(2011)는 민관 협치 거버넌스를 통한 농정혁신, 로컬푸드,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영국 런던의 서스테인의 활동과 토트네스 마을만들기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 지역의 마을만들기 주체, 운영원리, 거버넌스 형성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로컬푸드 및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민관 협치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둘째,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영역의 경우에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활용하고 이에 대해 행정에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셋째,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그마한 성취들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틀에 맞추어 지역 커뮤니티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 결국, 주체를 어떻게 키워내고 담론을 형성할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함을 제기했다.

기타 마을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0년 동안 이와 관련한 연구 성과를 분석한 심익섭·심화섭(216)의 “마을만들기 연구 경향의 분석과 과제”도 흥미롭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마을,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등 4가지 키워드로 검색한 198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연구의 경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들의 경우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논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는 마을만들기 활동의 효과 분석한 내용이었다. 셋째,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동기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을 위한 원칙과 방법론, 단계별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들이 이뤄질 것을 제안했다.

제3장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주민 의식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 대상마을의 마을만들기 추진실태 및 주민의식 파악

○ 조사내용

- ① 대상자 일반사항 : 성별, 연령, 주소, 직업, 마을내 역할, 귀농귀촌 여부, 거주기간
- ② 대상마을 일반현황 및 마을만들기 인지도
 - 마을 실제 거주인구, 가구수, 65세 이상 인구수, 인구의 변화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지도, 대상마을 마을만들기 추진 사실에 대한 인지도, 마을만들기 참여여부
- ③ 마을만들기 추진 경위 및 마을의 변화
 - 마을만들기(마을사업) 추진 사항, 마을 스스로 추진한 마을사업, 역량강화 실적
 - 마을발전계획서 내용 인지도, 계획 내용의 실현 여부 및 실현되지 않는 이유
 - 마을만들기 이후 마을 변화, 주민 의식 변화, 참여도 변화, 주민역량의 변화
 - 마을활성화 기여 여부, 마을만들기 추진의 애로사항
- ④ 향후 계획 및 정책 과제
 - 마을 변화 전망, 향후 마을만들기 추진 계획 유무 및 추진 테마, 마을주민 역할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향후 과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중간지원조직 설립 필요성 및 이유, 기능과 역할, 운영관리 주체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관련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2016년 5월 3일 ~ 5월 22일(20일간)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현장방문 면접조사
- 조사대상 : 마을당 1~2명의 마을리더(이장, 추진위원장, 사무장 등)
- 조사범위 : 2012년 및 2013년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추진한 508개 마을

〈표 3-1〉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주민 의식조사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 대상마을의 마을만들기 추진실태 및 주민의식 파악	
내용	① 대상자 일반사항	성별, 연령, 주소, 직업, 마을내 역할, 귀농귀촌 여부, 마을 거주기간
	② 대상마을 일반현황 및 마을만들기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실제 거주인구 및 가구수, 65세 이상 인구, 인구의 변화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인지도, 마을만들기 추진 인지도, 마을만들기 참여 여부
	③ 마을만들기 추진 경위 및 마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추진 사항, 마을 스스로 추진사업, 역량강화 실적 - 마을발전계획서 인지도, 계획내용 실현 여부, 실현되지 않는 이유 - 마을만들기 이후 마을 변화, 주민의식 변화, 참여도 변화, 주민역량의 변화 - 마을활성화 기여 여부, 애로사항
	④ 향후 계획 및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변화 전망, 마을만들기 추진계획 및 내용, 마을주민의 역할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향후 과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기능과 역할, 운영주체 -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
기간	2016년 5월 3일 ~ 5월 22일(20일간)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현장방문 면접조사	
대상	마을당 1~2명의 마을리더(이장, 추진위원장, 사무장 등)	
범위	2012년 및 2013년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추진한 508개 마을	

2.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주민 의식조사 결과

1) 응답자 속성

주민의식조사는 507개 마을(1개 마을 결측)의 총 1,00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의 속성을 보면, 먼저 성별에서 남자가 82.7%로 여자의 17.3% 보다 많다. 연령은 60대가 전체의 46.1%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대가 39.3%를 점유하고 있다. 응답자의 거주지는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논산시(10.5%), 부여군(10.1%)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응답자의 직업은 대부분 농어업(98.5%)에 종사하고 있으며, 마을내 역할로는 주로 추진위원(장)(29.6%)과 이장(49.0%)이 많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마을 원주민(93.8%)이고, 대부분 30년 이상(92.5%) 거주하고 있다.

〈표 3-2〉 응답자 속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834	82.7	역할	추진위원(장)	298	29.6
	여	174	17.3		이장	494	49.0
연령	31~40세	1	0.1		청년회장	55	5.5
	41~50세	70	7.0		부녀회장	109	10.8
	51~60세	395	39.3		새마을지도자	44	4.4
	61~70세	463	46.1		영농후계자	41	4.1
	71~80세	78	7.8		노인회장	37	3.7
	81~90세	1	0.1		일반주민	151	15.0
					기타	18	1.8
거주 시· 군	계룡시	12	1.2	귀 농 귀 촌	마을 원주민	945	93.8
	공주시	80	7.9		귀농(어)인	59	5.9
	금산군	68	6.7		귀촌인	1	0.1
	논산시	106	10.5		마을 외지인	3	0.3
	당진시	68	6.7	직 업	농어업	993	98.5
	보령시	56	5.6		상업	9	0.9
	부여군	102	10.1		서비스업	3	0.3
	서산시	72	7.1		주부	2	0.2
	서천군	56	5.6		기타	1	0.1
	아산시	82	8.1	거 주 기 간	5년 이하	1	0.1
	예산군	68	6.7		5~10년	12	1.2
	천안시	40	4.0		10~20년	32	3.2
	청양군	56	5.6		20~30년	31	3.1
	태안군	56	5.6		30년 이상	932	92.5
	홍성군	86	8.5				

2) 마을 일반현황 및 마을만들기 인지도

현재 마을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대상마을 전체 평균은 205.1명으로, 101명에서 200명 이하가 전체의 45.2%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다음으로는 100명 이하가 33.3%를 점유하여, 전반적으로 대부분 200명 이하(76.0%)의 인구규모를 보였다. 실제 거주 가구 수의 평균은 89.8호로 대부분의 마을에 100호 이하(78.5%)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평균은 58.9%로 61% ~ 80% 이하가 46.3%, 41% ~ 60% 이하가 41.5%로 고령화된 마을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3〉 마을 실제 거주인구, 가구 수, 65세 이상 인구 수

구분		빈도(명)	비율(%)
실제 거주 인구 (평균 205.1명)	100명 이하	167	33.3
	101~200명 이하	226	45.2
	201~300명 이하	68	13.6
	301~400명 이하	19	3.8
	401~500명 이하	8	1.6
	501~1000명 이하	9	1.8
	1001명 이상	10	2.0
실제 거주 가구 수 (평균 89.8호)	50호 이하	169	33.6
	51~100호 이하	253	50.4
	101~200호 이하	61	12.2
	201호 이상	24	4.8
65세 이상 인구비율 (평균 58.9%)	40% 이하	54	10.8
	41~60% 이하	208	41.5
	61~80% 이하	233	46.3
	81~100% 이하	12	2.4

주 : n=507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인구규모에 대한 응답에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마을이 전체의 41.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재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이 38.9%로 나타났다. 반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마을이 16.4%,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마을도 2.4%로 나타났다.

〈표 3-4〉 마을 인구규모 변화

구분	빈도(명)	비율(%)
급속히 감소	12	2.4
서서히 감소	212	41.8
현재 규모 유지	197	38.9
서서히 증가	83	16.4
급속히 증가	3	0.6

주 : n=507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00%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5〉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인지도

구분	빈도(명)	비율(%)
잘 알고 있음	368	36.5
약간 알고 있음	640	63.5
전혀 모르고 있음	0	0.0

또한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수립된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00%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6〉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여부 인지

구분	빈도(명)	비율(%)
잘 알고 있음	376	37.3
약간 알고 있음	632	62.7
전혀 모르고 있음	0	0.0

마을만들기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60.6%가 적극 참여한 반면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5.4%를 점유하였다.

〈표 3-7〉 마을만들기 참여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164	16.3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447	44.3
약간 참여하였음	343	34.0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	54	5.4

3) 마을만들기 추진 경위 및 마을의 변화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 현재까지 마을에서 추진된 사항으로 99.0%의 마을에서 꽃길조성, 마을안길 정비 등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공공보조 없는 마을 자체 사업을 추진되었고, 94.5%의 마을에서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67.5%의 마을에서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보조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억원 ~ 5억원의 중규모 공공보조사업과 5억원 초과와 대규모 공공보조사업을 추진한 마을도 각각 7.9%, 3.2%로 나타났다.

〈표 3-8〉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479	94.5
공공보조 없는 마을 자체사업	502	99.0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보조사업	342	67.5
1억 원 ~ 5억 원의 중규모 공공보조사업	40	7.9
5억 원 초과와 대규모 공공보조사업	16	3.2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음	2	0.4
기타	0	0.0

주 : 복수응답 (n=507)

외부지원 없이 마을 스스로 추진한 사업으로는 59.6%의 마을에서 ‘꽃길조성 및 경관식재’가 추진되었고, 이 외에 ‘마을안길 정비(47.1%)’, ‘공동시설 정비(44.0%)’, ‘복지사업(35.3%)’ 등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에도 리더 및 주민교육 등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는 질문이 전체마을의 82.2%를 점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마을도 6.1%로 나타났다.

〈표 3-9〉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 자체 추진한 사업

구분	빈도(명)	비율(%)
꽃길조성 및 경관식재	302	59.6
마을안길 정비	239	47.1
담장정비 또는 벽화 조성	14	2.8
공동시설 정비	223	44.0
공동시설 신축	9	1.8
복지사업 추진	179	35.3
소득사업 추진	40	7.9
기타	16	3.1

주 : 복수응답 (n=507)

〈표 3-10〉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100	19.7
그렇다	317	62.5
보통	59	11.6
아니다	27	5.3
전혀 아니다	4	0.8

주 : n=507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수립된 마을계획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약간 알고 있다'가 전체의 74.1%, '잘 알고 있다'가 19.3%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마을 지도자는 수립된 마을계획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마을발전계획서 내용 인지

구분	빈도(명)	비율(%)
잘 알고 있음	195	19.3
약간 알고 있음	797	79.1
전혀 모르고 있음	16	1.6

한편, 마을발전계획서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잘 실현되고 있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64.1%를 점유한 반면,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도 12.0%로 응답되었다.

〈표 3-12〉 마을발전계획서 실현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잘 실현되고 있음	94	9.3
잘 실현되고 있음	552	54.8
보통	241	23.9
실현되고 않고 있음	110	10.9
전혀 실현되고 않고 있음	11	1.1

마을발전계획서 내용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로는 ‘마을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 부족(9.6%)’과 ‘마을주민의 역량 부족(6.1%)’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 외 마을 현실과 맞지 않아 실현되기 어렵고, 공공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13〉 마을발전계획서 내용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마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실현되기 어려움	30	3.0
마을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부족	97	9.6
마을주민의 역량 부족	61	6.1
공공의 지원 부족	29	2.9
시간의 부족	5	0.5
기타	0	0.0

주 : 복수응답

마을만들기 이후 전반적으로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의견이 78.3%인 반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의견은 불과 0.4%를 보여 대체적으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4〉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 마을 변화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됨	108	10.7
긍정적으로 변화됨	681	67.6
변화되지 않음	215	21.3
부정적으로 변화됨	0	0.4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됨	0	0.0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의식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응답이 79.8%를 점유하였다.

〈표 3-15〉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의식 변화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됨	125	12.4
긍정적으로 변화됨	679	67.4
변화되지 않음	202	20.0
부정적으로 변화됨	2	0.2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됨	0	0.0

또한,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 단합과 참여도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도 70.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마을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에 대해서도 71.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마을만들기가 마을발전, 주민 공감대 및 의식 변화, 주민 단합 및 참여도, 주민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16〉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 단합과 참여도 변화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됨	106	10.5
긍정적으로 변화됨	606	60.1
변화되지 않음	288	28.6
부정적으로 변화됨	8	0.8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됨	0	0.0

〈표 3-17〉 마을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변화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됨	108	10.7
긍정적으로 변화됨	609	60.4
변화되지 않음	283	28.1
부정적으로 변화됨	8	0.8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됨	0	0.0

마을만들기가 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에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전체의 61.2%,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14.2%를 차지하여, 전반적인 긍정의견이 75.4%로 나타났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3.1%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3-18〉 마을만들기가 마을 활성화 도움 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도움이 됨	143	14.2
약간 도움이 됨	617	61.2
보통임	217	21.5
도움이 안 됨	31	3.1
전혀 도움이 안 됨	0	0.0

한편 마을만들기 추진의 제약사항으로는 ‘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인력부족’이 3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 부족(18.8%)’,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의지

부족(16.8%)', '마을주민의 역량 및 경험 부족(14.1%)' 등이 순서로 나타났다.

〈표 3-19〉 마을만들기 추진의 제약

구분	빈도(명)	비율(%)
우수한 리더 및 인적자원 부재	67	6.6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	319	31.6
마을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의지 부족	169	16.8
마을주민 간 갈등 또는 협력 부족	121	12.0
마을주민의 역량 및 경험 부족	142	14.1
행정의 지속적 관심 및 지원 부족	189	18.8
기타	1	0.1

향후 마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활성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4.2%로 나타나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 침체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0.8%를 점유하였다.

〈표 3-20〉 향후 마을 변화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활성화될 것임	69	6.8
활성화될 것임	760	75.4
변화 없을 것임	170	16.9
침체될 것임	7	0.7
매우 침체될 것임	2	0.2

4) 향후 계획 및 정책과제

향후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69.1%로 나타났으며,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3.9%의 비율을 보였다.

〈표 3-21〉 마을만들기 지속 추진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65	6.4
그렇다	632	62.7
보통	272	27.0
아니다	39	3.9
전혀 아니다	0	0.0

마을만들기의 주된 테마로는 ‘소득사업(농업소득) 추진’과 ‘마을경관 및 환경 정비’가 각각 2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촌체험·관광 추진’ 19.6%, ‘문화·복지여건의 개선’ 19.4%,로 나타났다.

〈표 3-22〉 향후 마을만들기 주된 테마

구분	빈도(명)	비율(%)
기초생활환경 정비	93	9.6
문화복지여건의 개선	188	19.4
마을경관 및 환경 정비	218	22.5
소득사업(농업소득) 추진	218	22.5
농촌체험·관광 추진	190	19.6
주민역량 강화	62	6.4
기타	0	0.0

향후 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주민이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마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4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보다는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35.9%로 많았다. 기타, ‘외부의 도움보다는 마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우선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15.8%, ‘고령화, 인구감소 등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의견이 7.9%로 나타났다.

〈표 3-23〉 향후 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할

구분	빈도(명)	비율(%)
고령화, 인구감소 등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음	80	7.9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미비하고 무엇보다 공공의 지원이 우선 필요함	362	35.9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이 함께 필요함	407	40.4
외부의 도움보다는 마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우선 키워야함	159	15.8
기타	0	0.0

현재 마을만들기 추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72.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의 의견도 2.0%를 보였다.

〈표 3-24〉 현재 마을만들기 추진에 대한 만족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	73	7.2
만족	657	65.2
보통	258	25.6
불만족	20	2.0
매우 불만족	0	0.0

마을만들기 추진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마을 환경 및 경관이 개선(19.2%)되고, 주민 공동체 의식 및 협동심이 고취(16.3%)되었으며, 마을변화에 대한 주민 동기부여 및 의식이 개선(15.0%)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표 3-25〉 마을만들기 만족 이유 (상위 5위)

구분	빈도(명)	비율(%)
마을 환경 및 경관 개선	194	19.2
주민 공동체 의식 강화 및 협동심 고취	164	16.3
마을변화에 대한 주민 동기부여 및 의식개선	151	15.0
마을 활성화 및 연계 사업 추진	93	9.2
마을발전 및 자립화	37	3.7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과제로는 마을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마을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1.1%, 마을주민의 참여 및 단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4.0%,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마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4.0%를 점유하였다.

〈표 3-26〉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우선 과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마을의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등을 통한 마을주민의 의식개혁과 역량강화	115	11.4
마을주민의 참여 및 단합	247	24.5
마을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마을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313	31.1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	138	13.7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 및 체계적인 마을 관리	141	14.0
마을과 행정을 연결하고 중간에서 마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54	5.4
기타	0	0.0

특히,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다양한 예산 마련 및 지원 확대(31.5%)’, ‘마을역량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25.7%)’, ‘마을만들기 전담 공무원의 배치(18.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27〉 행정의 역할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과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마을역량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관리	259	25.7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예산 마련 및 지원 확대	318	31.5
마을만들기 전담 공무원 배치	188	18.7
마을사업 등 마을만들기 정보의 One-stop 제공 전담부서 또는 창구의 마련	169	16.8
지자체장(도의원)의 관심 및 담당 공무원의 의지 확대	74	7.3
기타	0	0.0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81.3%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중간지원조직 설립이 필요한 이유로는 ‘마을만들기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마을지원의 전문성 확보 및 전문가 자문’, ‘지속적인 사후 피드백 관리’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3-28〉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필요	132	13.1
필요	687	68.2
보통	181	18.0
불필요	8	0.8
전혀 불필요	0	0.0

〈표 3-29〉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한 이유(상위 5위)

구분	빈도(명)	비율(%)
마을만들기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121	12.0
마을지원의 전문성 확보 및 전문가 자문	115	11.4
지속적인 사후 피드백 관리 필요	90	8.9
현실에 맞는 현장 밀착형 행정지원	79	7.8
정보 공유 및 제공	60	6.0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진단 및 컨설팅(44.6%)’, ‘다양한 마을사업 관련 정보제공(37.8%)’, ‘마을발전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수립(33.9%)’, ‘지역차원의 다양한 마을사업의 총괄 및 통합운영 지원(33.3%) 등의 의견을 보였다.

〈표 3-30〉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구분	빈도(명)	비율(%)
다양한 마을사업 관련 정보제공 (One-Stop 창구역할)	381	37.8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진단 및 컨설팅	450	44.6
마을발전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수립 지원	342	33.9
마을 및 지역의 다양한 민간조직의 연계협력 및 조직화 유도	297	29.5
지역차원의 다양한 마을사업의 총괄 및 통합 운영 지원	326	32.3
마을자원 조사, 마을만들기 추진 실태 모니터링, DB 구축 및 관리	275	27.3
사업아이템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마을지원 연구	240	23.8
마을만들기 관련 인적자원의 발굴 및 육성	137	13.6
기타	0	0.0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공공(행정)이 운영·관리하다가 민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47.1%로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행정)이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31.8%의 비율을 보였다.

〈표 3-31〉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관리 주체

구분	빈도(명)	비율(%)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행정)이 운영관리하여 함	321	31.8
처음에는 공공(행정)이 운영관리하다가 차차 민간으로 이전해야 함	475	47.1
처음에는 민간이 운영관리하다가 차차 공공(행정)으로 이전해야 함	139	13.8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이 운영관리해야 함	73	7.2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 “지역 현실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주민 역량강화 및 참여 확대”, “마을지원금 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3-32〉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건의사항(상위 5위)

구분	빈도(명)	비율(%)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	37	3.7
지역 현실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	30	3.0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4	2.4
주민 역량강화 및 참여 확대	23	2.3
마을지원금 확대	23	2.3

3. 소 결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2012년과 2013년에서 육성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마을은 실제 거주인구 200명 이하가 78.5%를 점유하고 있으며, 100명 이하의 마을도 33.3%로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대상마을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평균 58.9%로 대부분의 마을 인구가 현재 규모를 유지(38.9%)하고 있거나 서서히 감소(41.8%)하고 있고,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마을도 2.4%에 달했다. 즉, 대부분의 농어촌마을이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도 과소화·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마을의 공동체 소멸 및 기능 상실 등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고, 마을만들기와 같은 마을 활성화의 계기가 필요한 마을들이라 할 수 있다.

응답자 모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인지하고 있으며,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고, 응답자의 94.6%는 마을만들기에 참여하였고 이중 60.6%는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발전계획서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64.1%는 잘 실현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반면 12.0%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현되지 않는 이유로는 ‘마을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부족’, ‘마을주민의 역량 부족’,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내용’ 등의 의견을 보였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추진한 이 후, 99.0%의 마을이 마을 스스로의 자체 마을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의 내용으로는 ‘꽃길조성 및 경관식재(59.6%)’, ‘마을안길 정비(47.1%)’, ‘공동시설 정비(44.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마을 중 67.5%의 마을은 소규모 선행사업을 포함한 1억 원 미만의 공공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억 원 ~ 5억 원의 중규모 공공보조사업은 7.9%의 마을에서, 5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공공보조사업은 3.2%의 마을에서 추진되었다.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 주민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도 82.2%에 달했다. 반면, 전혀 추진실적이 없는 마을은 0.4%(2개 마을)에 불과하여,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계기로 대부분의 마을에서 활성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마을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 마을변화에 대해 73.8%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반면 변화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21.3%를 점유하였다. 구체적으로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의식변화에 대해서 79.8%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의견을 보였고, 주민 단합과 참여도 변화는 70.6%, 주민역량의 변화는 71.1%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실제 75.4%는 마을만들기로 인해 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20~30%는 각 항목에 대해 변화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여 이들 마을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에 대해 응답자의 72.4%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반면 불만족의 의견은 2.0%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마을이 향후 마을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원하고 있으며(69.1%), 마을만들기의 테마로는 ‘마을경관 및 환경 정비’와 ‘소득사업 추진’이 가장 많고, 이 외에도 ‘농촌체험관광 추진’, ‘문화·복지 여건의 개선’ 등의 다양한 분야의 마을사업이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제약이 되는 사항이나 애로사항으로는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31.6%)’을 가장 높게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부족(18.8%)’,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의지 부족(16.8%)’, ‘마을주민의 역량 및 경험 부족(14.1%)’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후자에 제시한 3가지의 사항은 주민교육이나 관련 주체의 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첫 번째로 제시한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의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선인 과제로는 ‘마을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마을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31.1%)’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기타 ‘마을주민의 참여 및 단합(24.5%)’,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 및 체계적인 마을 관리(14.0%)’, ‘마을의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등을 통한 마을주민의 의식개혁과 역량강화(11.4%)’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향후 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역할에 대해서는 외부의 도움보다는 마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우선 키워야 한다(15.8%)는 의견과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40.4%)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미비하고 무엇보다 공공의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35.9%)는 의견과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7.9%)는 의견도 상당수 제시되어 마을주민의 내발적 역량보다는 외부역량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예산 마련과 지원 확대(31.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마을역량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관리(25.7%)’, ‘마을만들기 전담 공무원 배치(18.7%)’, ‘마을사업 등 마을만들기 정보의 One-stop 제공 전담부서 또는 창구의 마련(16.8%)’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행정의 지원확대와 함께 행정시스템의 개편, 체계적인 마을관리체계의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대상자의 81.3%가 동의하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진단 및 컨설팅(44.6%)’, ‘다양한 마을사업 관련 정보제공(37.8%)’, ‘마을발전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수립 지원(33.9%)’, ‘지역차원의 다양한 마을사업의 총괄 및 통합 운영 지원(32.3%)’ 등의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관리 주체로는 처음에는 공공(행정)이 운영·관리 하다가 차차 민간으로 이전(47.1%)하는 형태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행정)이 운영·관리(31.8%)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제4장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현장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 대상마을의 현장실태 파악 및 주민의견 수렴

○ 조사내용

① 대상자 일반사항 : 연령, 직업, 마을내 역할, 마을 거주기간

② 대상마을 일반현황

- 실제 거주인구 및 가구수, 최근 5년간 전입(귀농·귀촌) 인구
- 주요 농작물 및 수입원, 기타 마을의 특징

③ 마을만들기 추진 실태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년도 및 주민참여 정도(5점 척도)
- 마을발전계획서 주요 테마 및 내용 / 마을발전계획 실행 여부
- 그동안 추진되었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마을사업 (사업명, 추진년도, 사업내용, 사업비 등) / 마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

④ 마을만들기 성과 및 향후 계획

- 마을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변화(5점 척도) 및 이유
- 마을주민 단합·참여도 변화(5점 척도) 및 이유
- 마을 주민역량 변화(5점 척도) 및 이유
- 마을발전 기여 정도(5점 척도) 및 내용
- 마을발전(변화) 내용 및 이유
- 향후 마을만들기(마을사업) 추진 의지(5점 척도) 및 계획

⑤ 마을만들기 관련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

- 마을만들기(마을사업) 추진의 어려움
- 시군 및 정책 건의사항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2016년 5월 17일 ~ 5월 23일
- 조사방법 : 현장방문 면접조사
- 조사대상 : 마을당 1~2명의 마을리더(이장, 추진위원장, 사무장 등)
- 조사범위 : 2012년 및 2013년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추진한 마을중 12개 마을
(조사 용의성, 시군 안배 등을 고려하여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홍성군 4개 시군을
중심으로 담당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각 3개 마을(우수마을 2, 비우수마을 1) 선정)
- 대상마을 · 공주시 : 의당면 요룡1리, 우성면 봉현리, 탄천면 성리
· 논산시 : 강경읍 채운2리, 성동면 우곤2리, 상월면 숙진2리
· 청양군 : 정산면 대박리, 화성면 화암리, 비봉면 장재리
· 홍성군 : 홍동면 효학리, 홍동면 반교리, 결성면 교촌리

〈표 4-1〉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현장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 대상마을의 현장실태 파악 및 주민의견 수렴	
내용	① 대상자 일반사항	연령, 직업, 마을내 역할, 마을 거주기간
	② 대상마을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거주인구 및 가구수 - 최근 5년간 전입(귀농·귀촌) 인구 - 주요 농작물 및 수입원 - 기타 마을의 특징
	③ 마을만들기 추진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추진년도 및 주민참여 정도 - 마을발전계획서 주요 테마 및 내용 - 마을발전계획 실행 여부 - 그동안 추진된/예정인 마을사업 (사업명, 추진년도, 사업내용, 사업비 등) - 마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
	④ 마을만들기 성과 및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변화 및 이유 - 마을주민 단합·참여도 변화 및 이유 - 마을 주민역량 변화 및 이유 - 마을발전 기여 정도 및 내용 - 마을발전(변화) 내용 및 이유 - 향후 마을만들기(마을사업) 추진의지 및 계획
	⑤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마을사업) 추진의 어려움 - 시군 및 정책 건의사항
기간	2016년 5월 17일 ~ 5월 23일	
방법	현장방문 면접조사	
대상	마을당 1~2명의 마을리더(이장, 추진위원장, 사무장 등)	
범위	2012년 및 2013년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추진한 12개 마을	

2.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현장 실태조사 결과

1) 공주시

(1) 의당면 요룡1리

요룡1리는 실제 거주인구 60명 정도에 3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농촌마을로 최근 5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마을의 주요 농업활동으로 벼, 밭작물, 밤 등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외지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 마을의 특징으로는 요룡저수지가 있고 체험농가 공주드림팜(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2013년에 추진되었고,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초기에는 주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참여율도 매우 높았으나, 이후 차츰 열기가 식어갔다고 한다. 마을발전계획서의 주요 테마는 농촌체험관광이었으며, 현재 체험농가 등을 중심으로 실현해 가고 있는 중이다.

2013년 마을만들기 이후 추진된 마을사업으로는 2014년 선행사업(사업비 : 3,400만원)을 통하여 마을안내판 및 입구간판(엄지마을) 설치, 회관시설(데크, 에어컨, 빔프로젝트 등) 정비 등이 이루어지고, Home coming day를 통해 마을 우물에서 제사를 지내 출향인들의 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2015년에는 체험농가 '농원1박2일'이 2,000만원의 보조를 받아 체험장 정비가 이루어졌고, 또한 요룡1리와 두만리를 묶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사업비 : 40억원)이 추진되고 있다. 2016년에는 문화재정비사업(전통문화살리기)으로 2,000여 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마을 우물을 복원하였다.

마을만들기에 대한 성과로, 우선 마을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매우 우수한 변화를 보였으며, 주민 단합 및 참여도도 초기에는 우수하였으나 2014년 이후 후속사업이 주민들이 기대한 만큼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후 참여도가 약간 저조해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역량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현재까지 마을만들기를 통해 나타난 성과로는 주민복지(회관 정비 등), 마을홍보, 산책로 및 안내판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마을만들기 추진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주민의 역량부족을 들고 있다. 공동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타성에 젖어 적극적인 참여도가 미흡하고 일정한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역량의 문제가 있으며, 향후 교육 등을 통한 인식개혁과 중장기적인 시각 확보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마을만들기 이후 의욕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지속적으로 마을의 실태, 역량, 의지 등을 파악하여 마을의 여건에 맞는 마을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마을육성을 유도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공주시에서 올해 설립한 도농교류 중간지원조직 ‘나드리센터’와 관련하여 운영주체인 ‘공주나드리협동조합’은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일부 마을만 포함되어 있어 극히 제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도농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나 체험농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주시 전체 도농교류의 거버넌스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건의하고 있다. 기타, 이 외에 행정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마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잘못된 법과 제도 등의 규제개선을 관계자와 마을주민간 등이 함께 논의하여 해결해 나가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건의사항 등을 제안하였다.

(2) 우성면 봉현리

봉현리는 현재 인구150명, 가구수 70호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5세대 정도가 귀촌해 들어왔다. 마을의 주요 농작물은 벼, 밤, 은행, 고추, 축산(2가구) 등이며, 주로 농업소득이 주소득원이 되고 있다. 마을의 특징으로는 예전에는 예울리 물레방아마을로 물레방아가 6개소 정도가 있었고 현재는 일부가 전래되고 있으며, ‘공주 봉현리 상여소리’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되어 있고 마을 자체적으로 전수관 조성 및 전수자 육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2012년에 추진되어 주민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고 한다. 마을발전계획서는 주로 농촌체험관광을 테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최근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예울림권역)을 통해 계획의 내용을 실현해 가는 중이다.

현재까지 추진된 마을사업으로는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 이전에 이미 2008년 공주시 5도2촌마을로 선정되어 약 2억 여 원이 투자되어 체험관과 황토방(숙소) 등이 조성되어 도농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2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거쳐 2014년부터 예울림권역(봉현리와 안양리)으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중으로 다목적체험관, 물놀이시설, 펜션, 주차장 등이 조성중에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체험휴양마을과 인성학교가 지정되었고, 상여소리 무형

문화재와 관련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전수관을 조성하고 매년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림 4-1〉 공주시 봉현리 농경문화자료관(좌) 및 물레방아(우)

마을만들기에 대한 성과로, 마을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우수한 변화를 보였으며, 마을주민의 단합이나 참여도는 주로 젊은 층 위주의 참여로 보통의 수준을, 그리고 마을주민의 역량은 우수한 변화의 수준을 보였다. 한편, 향후 마을만들기(마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의지는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만들기 추진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으로는 공주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진척의 지연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으며, 사무장 급여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그외 역량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지원이 마을사업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을역량에 맞는 맞춤형 사업비지원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3) 탄천면 성리

탄천면 성리는 실제 거주인구 83명에 가구수 43호의 농촌마을로, 최근 5년간 1가구 정도가 귀촌해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마을이다. 주요 농작물로는 벼, 고구마, 깨, 고추 등이 생산되고 있고, 한우농가가 6호 정도 있으며, 몇몇 마을주민은 외지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 마을의 특징으로는 부여와 공주를 잇는 국도 40호선이 마을을 관통하여 지나는 접근성이 우수한 마을로 명마골, 명마(名馬)바위(명마가 울었다고 함), 효자비, 옛 과거

길 등 지명과 지형에 얽힌 이야기가 다수 전래되고 있으며, 등산로, 증평천 등의 자연환경 여건이 우수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탄천면 추천을 통해 2012년에 추진되어 초기에는 마을주민 40여 명이 교육을 받을 정도로 주민 참여도가 우수하였으나 그 후에는 몇몇 리더 이외의 마을주민들의 참여가 약화 되었다고 한다. 마을발전계획서는 소득사업(고추가공 등의 농산물가공)과 농촌체험관광(물고기 체험, 말 관련 체험 등)을 주된 테마로 작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마을사업은 2013년 소규모사업(3천만 원)으로 수로 3개소 정비를 추진한 것 이 외에는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마을주민들의 동의 및 참여의지 부족, 젊은 층 등 인적자원 부족, 마을자원 및 제반여건의 미흡 등을 들고 있다. 즉, 젊은 층이 마을 외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됨에 따라 젊은 층의 인력이 부족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있는 60~70대 주민이 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마저 지금은 10여명에 불과하여 마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또한,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역시 대부분 자급자족 수준에서 생산량이 많지 않아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으며, 마을기금과 마을토지의 부재 역시 마을사업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몇몇 리더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만 받고 있으며, 그 외 10여 년 전에 과학영농, 마을발전 등을 위해 조직된 '번영회'가 현재는 목적이 변경되어 일반적인 마을 상조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즉, 성리는 아직까지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쌀직불금 증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가의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표 4-2〉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공주시 대상마을 현장 실태조사 결과

구 분		공주시		
		의당면 요룡1리	우성면 봉현리	탄천면 성리
일반현황	인구(가구수)	60명(30호)	150명(65호)	83명(43호)
	최근5년간 귀농귀촌수	4가구	5가구	1가구
	소득원	농업, 도농교류	농업	농업, 기타
마을만들기 추진실태	마을만들기 추진연도	2013년	2012년	2012년
	주민참여도	매우우수	매우우수	우수
	마을발전 계획서 테마	농촌체험관광	농촌체험관광	소득사업(가공), 농촌체험관광
	주요 추진 마을사업	-소규모선행사업 -체험장정비 -권역사업 -우물복원 등	- 5도2촌마을 - 권역사업 - 체험휴양마을 - 농어촌인성학교 - 마을축제 등	- 소규모선행사업 - 번영회 운영 (상조회)
마을만들기 성과 및 추진의지	공감대형성	매우우수	우수	매우불량
	주민참여도	우수	보통	불량
	주민역량	보통	우수	불량
	마을발전기여도	매우우수	보통	불량
	추진의지	우수	우수	보통
애로 및 건의사항	애로사항	-주민 역량부족 -행정담당 잦은이동	-행정담당 잦은이동	- 인적자원 부족 - 마을토지 부족
	건의사항	-지속적 마을관리 -중간지원조직 정비 -관련 규제개선	-사무장 급여지원 -역량별 사업지원	- 쌀 직불금 증대

2) 논산시

(1) 강경읍 채운2리

채운2리는 실제 마을인구 180명, 8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농촌마을로, 최근 5년간 4가구 정도의 귀농·귀촌인이 전입해 들어왔으며 최근 귀농·귀촌하려는 인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작물은 벼, 시설작물(수박, 토마토, 딸기), 축산, 기타 밭작물이며, 농외소득원은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채운2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특이한 자원과 특징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을주민들은 역량강화를 통한 마을 인적자원의 확충과 협력을 마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고 있다.



〈그림 4-2〉 논산시 채운2리 마을안내 시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2012년에 추진되었으며, 당시 마을 이장(현 이장 겸 추진위원장과 동일)이 새로 선출되면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만들기가 막 추진된 당시 주민들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참여도가 저조하였으나 이후 교육 등을 통하여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마을 대부분의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까지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마을발전 계획서에는 체험·소득, 문화·복지, 경관·환경 모든 분야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경관·환경 분야(꽃밭만들기 등)를 시작으로 계획서의 내용을 실현해 가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된 마을사업으로는 최초 마을 이장이 현재 이장으로 교체된 이후 마을 경관저

해 요소였던 쓰레기장을 마을자체 노력으로 꽃밭을 조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을내 불법 쓰레기 투기가 근절되었다고 한다. 2014년에는 도랑살리기사업(2천만 원)으로 친환경단지조성을 위한 정비가 이루어졌고, 2015년에는 소규모선행사업(3천만 원)으로 ‘희망의 그네’, 간판(안 내판) 등이 조성되었다. 또한, 문화재단에 의뢰하여 다듬이, 풍물, 기체조 등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매년 마을 자체비용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데 올해는 일본으로 다녀왔다고 한다. 이외에 돈을 벌기 위한 행사가 아닌 마을공동체 소통을 위한 행사로 마을잔치, 마을회관 공동 식사 등을 개최하고 있고, 매년 8월 둘째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열무축제(콩나라 열무공주)가 개최(올해 4회가 개최될 예정)되고 있으며 작년기준 1,3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한편, 채운2리(황금빛마을)는 농식품부가 주관하여 개최되고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2015년 경관환경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상금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으며, 그 금액으로 90그루 정도의 소나무를 식재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경관환경 분야 사업을 신청중에 있다.

마을만들기의 성과로, 마을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관하여 매우 우수한 변화를 보였으며 마을주민 단합과 참여도는 우수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마을 주민역량의 변화는 매우우수한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마을만들기가 마을발전에 대한 기여한 정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붕개량, 빈집 및 폐축사 정비, 담장 없는 정원 조성, 마을진입로 확장, 주차장 조성 등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로의 발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추진의지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만들기 추진에서의 애로사항으로 인력부족의 문제, 교육 등에서 젊은 인적자원의 참여 미흡 등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시군 및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행정 담당공무원의 전문화와 지속적인 보직수행(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하고, 둘째, 마을사업 선정과정에서의 관주도나 계획서 잘 만들어서 선정되는 폐단을 없애고 역량에 맞는 대상 마을 선정 및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침체된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열정 있는 마을 리더(최소 5명)를 육성·지원하여 마을만들기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마을 브랜드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선진지 견학, 컨설팅 등)여건 마련, 현장관리 등 현장 밀착형 행정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2) 성동면 우곤2리

우곤2리는 현재 100명, 6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농촌마을로, 최근 5년간 5가구(10여명)정도가 귀농·귀촌해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 주요 농작물로는 시설작물(딸기, 토마토, 수박, 상추 등), 고구마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 외 일부 도농교류를 통해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다. 마을의 특징으로는 금강이라는 수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우치'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2012년에 추진되었는데, 순수하게 마을주민의 의지에 의해 참여하게 되었고 주민참여도도 매우 높았다고 한다. 마을학교 등을 통해 수립된 마을발전계획서의 주된 테마는 농촌체험관광으로 구체적으로는 100년 된 우곤교회 1층 건물을 활용한 예술창작 활동 사업 추진, 체험관 2층을 활용한 귀농유도 인큐베이팅 시설 조성, 노인복지를 위한 공동생활홈 조성, 전우치 기념관 조성 및 임야를 활용한 '전우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 계획되었고, 현재는 계획의 내용이 조금씩 실현되어가는 과정이다.

우곤2리는 2009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으로 2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체험관을 조성하면서 농촌체험관광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1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됨과 동시에 마을기업으로 8천만 원을 지원받아 한과 등 농산물 가공사업(한과는 전문가 인건비 문제로 중단하고 현재는 잼 등을 가공)이 추진되었다. 또한, 2013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와 농식품부 현장포럼을 거쳐 2014년과 2015년에는 소규모선행사업(4천만 원)으로 도로변 울타리 및 스토리보드판 설치, 안내판 설치 및 캐릭터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역시 같은 해 체험마을 사후관리사업(2억 원)으로 농산물판매장, 수영장 및 샤워장 등이 조성되었다. 마을자체사업으로는 마을안길 연산홍 식재, 공동청소, 공동택배발송, 농촌체험프로그램 참여, 마을 공동식당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사업으로 연 5천 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다. 한편, 2015년에는 충청남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체험소득분야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마을만들기의 성과로, 마을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관하여 우수한 변화를 보였으며 마을주민 단합과 참여도는 매우 우수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마을 주민역량의 변화는 우수한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마을만들기가 마을발전에 대한 기여한 정도는 아직까지는 보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마을만들기 추진 당시 성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필요함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현재는 마을사업에 대한 시행착오가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마을만들기 추진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으로는 추진위원장 등 마을리더의 댓가 없는 마을사업 봉사의 어려움, 그리고 마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과 사무장 인건비 충당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마을만들기 후속관리대책으로 대상을 주민의 역량과 동기부여, 의지가 갖추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고, 귀농귀촌인을 활용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자금관리와 경영을 위한 컨설팅 등이 지원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을만들기에서 마을주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3) 상월면 숙진2리

숙진2리는 실제 거주인구 60명, 실제 거주 가구수 40호 정도로 구성된 농촌마을로, 최근 5년간 2가구 정도가 귀농·귀촌해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 마을의 주요 농작물로는 벼, 수박, 메론, 딸기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최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숙진2리는 최근 친환경농업으로 친환경쌀 재배를 시작하였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2013년에 마을리더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숙진2리는 순수한 농촌마을로 경관, 자원 등이 미흡하고 조건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마을만들기 참여를 포기하였고 주민참여도도 매우 저조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발전계획서의 주요 테마는 소득사업 분야로 주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벼 건조 보관시설, 농기계 보관 창고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계획의 내용이 실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에서 추진된 마을사업은 대부분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500만 원의 보조를 받아 친환경농업 농기계 보조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유박 등을 지원받았다. 또한 숙진2리에서는 마을토지 1,200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마을청년회(30여명)에서 공동으로 매년 농사를 지어 쌀 6가마를 마을에 기증하고 나머지는 청년회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숙진2리는 아직까지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마을만들기 추진후에도 마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지, 예전에는 청년층과 노인층의 갈등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해소되었고, 최근 마을인근 제방을 활용하여 유실수를 심어 소득창출을 도모해 보자는 마을주민의 논의도 있었으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건의사항으로는 마을기반(기초생활환경)정비, 용배수로 정비와 시설하우스에 대한 직불금

보조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추진과 관련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논산시 대상마을 현장 실태조사 결과

구 분		논산시		
		강경읍 채운2리	성동면 우곤2리	상월면 숙진2리
일반현황	인구(가구수)	180명(80호)	100명(60호)	60명(40호)
	최근5년간 귀농귀촌수	4가구	5가구	2가구
	소득원	농업	농업	농업
마을만들기 추진실태	마을만들기 추진연도	2012년	2013년	2013년
	주민참여도	우수	매우우수	불량
	마을발전 계획서 테마	경관환경, 문화복지, 체험소득	농촌체험관광	농업소득
	주요 추진 마을사업	-꽃밭만들기 -도랑살리기 -소규모선행사업 -문화재단 교육 -선진지 견학 -열무축제 -마을잔치, 식사 -행복마을콘테스트 : 국무총리상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기업 -소규모선행사업 -체험마을 사후관리 사업 -마을안길 경관식재 -공동청소 -공동택배 발송 -마을공동식당운영	- 친환경농업 - 청년회 공동 농업 경영
마을만들기 성과 및 추진의지	공감대형성	매우우수	우수	불량
	주민참여도	우수	매우우수	불량
	주민역량	매우우수	우수	매우불량
	마을발전기여도	매우우수	보통	불량
	추진의지	우수	우수	불량
애로 및 건의사항	애로사항	-인력부족 -젊은층의 참여미흡	- 마을리더의 희생 - 시설유지관리비 - 사무장 급여	-청년층에서 포기
	건의사항	-행정담당 전문화 -마을사업 선정 및 관리시스템 개선 -리더육성 지원 -지속적인 교육지원 -현장밀착형 행정 시스템 도입	-대상마을 후속관리 -귀농귀촌인 등 인적자원 육성 -경영컨설팅 지원	-마을기반정비 -용배수로정비 -시설하우스 직불금

3) 청양군

(1) 정산면 대박리

대박리는 마을인구 150여 명에 가구수 70여 호가 거주하고 있는 농촌마을로, 최근 5년간 20여 명의 귀농인이 전입해 들어와 거주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마을의 주요 농작물은 벼, 구기자, 맥문동, 고추, 밤, 한우(3가구) 등이며, 일부 주민이 정산면과 천안시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마을의 특징으로는 마을내에 예전에 가마터였다고 하는 대박저수지가 위치하고 있고, 근래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 사라진 상여문화가 대박리에서 전래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2012년에 추진되었는데, 주민들의 마을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마을학교 등 교육에 마을주민 4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참여도가 우수하였다고 한다. 마을발전계획서의 주된 테마는 소득증대 분야로 미나리 등의 재배를 통한 소득 증대, 낚시터 등 저수지 활용 등의 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에 있다.

현재까지 추진된 마을사업으로 2014년부터 농식품부 창조적마을만들기 경관환경 분야 사업 등으로 1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 마을진입로 벚나무 식재, 저수지 둘레길 조성, 휴게공원(육각정), 화장실, 운동시설(족구장 등) 등을 조성 중에 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300만 원)이 추진 중에 있고, 올해 4월부터는 정산향교 9층 석탑 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박리는 이 외의 마을자체사업은 없지만, 매월 첫째주 월요일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마을만들기의 성과로, 마을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관하여 매우 우수한 변화를 보였으며 마을주민 단합과 참여도는 우수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마을 주민역량의 변화는 매우우수한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마을만들기가 마을발전에 대한 기여한 정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하천살리기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추진의지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만들기 추진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으로 주민들간의 갈등을 가장 큰 문제로 들고 있으며, 이 외에 귀농·귀촌인 등 외지인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불신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마을만들기 대상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대박리의 경우,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 당시 참여주민들의 기대가 높았으나 바로 후속 사업이 없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실망감이 심화되고 참여율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어, 마을만들기 대상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후속사업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는, 이장과 추진위원장의 역할 분담이다. 마을만들기가 추진되는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 이장이 추진위원장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각각의 역할을 분리하여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추진추체간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 청양에서 알프스마을과 같이 잘 된다고 여겨지는 마을만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을에도 균등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2) 화성면 화암리

화암리는 실제 거주 인구 185명, 가구수 75호로 구성된 농촌마을로, 최근 5년간 4~5가구 정도가 귀농·귀촌해 들어왔다. 마을의 주요 농산물은 쌀, 고추, 축산(4~5가구), 느타리버섯 등이 있으며,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폐교를 마을에서 매입하여 개발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폐교는 부지 2,700평, 건평 1,000평 규모로 한전 발전기금(3억6,500만 원)을 활용하여 마을에서 구입하게 되었고, 그 외 마을에서 친환경쌀 생산을 통해 청양군 최초로 학교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현 마을이장의 의지로 2013년에 추진되었으나, 초기에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저조하였다가 이후 마을학교 등의 교육을 통하여 차츰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마을발전계획서는 주로 폐교를 활용하는 내용이 중심이되어 경관과 체험소득 분야의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현재 농식품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하여 계획의 내용을 실현해 가고 있는 중이다.

화암리는 2006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으로 폐교를 구입하여 리모델링함으로써 농촌체험관광을 시작하게 되었고, 같은 해 농촌체험휴양마을로도 지정되어 연간 2,000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7~8년 전부터는 서울시에 소재한 1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급식재료를 공급함과 동시에 ‘학교농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초등학생들이 농촌을 방문하지 않고도 농업과 농민,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한편, 화암리는 2013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거쳐 2014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체험소득 분야의 보조금(사업비 : 4억 원)을 지원받아 폐교 숙박시설 2동 조성, 소회의실, 물놀이장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충청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직불금 시범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되어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이 외에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잔치, 마을청소, 제초작업, 경로잔치 등을 개최하고 있다.

마을만들기의 성과로, 마을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관하여 매우 우수한 변화를 보였으며 마을주민 단합과 참여도는 우수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마을 주민역량의 변화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마을만들기가 마을발전에 대한 기여한 정도는 우수하고, 향후 마을만들기(마을사업) 추진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만들기 추진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으로는 마을주민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부족과 사무장 부재, 대가 없는 리어의 회생요구로 인한 어려움, 이장 교체로 인한 지속성의 문제,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한 마을주민의 참여도 저하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건의사항으로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는 마을의 리더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 그리고 사무장 등의 인적자원 지원정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3) 비봉면 장재리

장재리는 실제 거주인구 210명, 가구수 88호로, 최근 5년간 5가구, 10여 명 정도가 귀농·귀촌해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 마을의 주요 농작물로는 벼, 고추, 구기자(10호, 노동력 감소로 생산농가 감소중), 한우(20호) 등이며 마을주민의 고령(65세 이상 100여 명)화로 인해 대부분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재리는 마을의 면적이 넓은 편이며 이로 인해 경로당이 3개소(남1, 여2)가 운영되고 있고, 마을에 소류지가 조성되어 있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당시 마을이장의 신청으로 2012년에 참여하게 되었고 주로 마을주민 5명 정도가 주축이 되어 교육을 받았으나 이후 마을이장이 교체되면서 마을만들기를 포기하게 되었다. 마을발전계획서는 주로 소류지 정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장재리는 2014년 도량살리기사업(2천만 원)이 추진된바 있고, 마을 청년회 주관으로 정월대보름 윷놀이, 어버이날 잔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장재리는 아직까지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마을만들기(마을사업) 추진 의지도 미약하다. 기타, 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청양군 대상마을 현장 실태조사 결과

구 분		논산시		
		정산면 대박리	화성면 화암리	비봉면 장재리
일반현황	인구(가구수)	150명(70호)	185명(75호)	210명(88호)
	최근5년간 귀농귀촌수	20명	5가구	5가구, 10명
	소득원	농업, 기타	농업, 도농교류	농업
마을만들기 추진실태	마을만들기 추진연도	2012년	2013년	2012년
	주민참여도	우수	우수	매우불량
	마을발전 계획서 테마	소득분야	도농교류, 소득	소류지 정비
	주요 추진 마을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경관환경분야) -동네자치시범사업 -문화재 지킴이 등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친환경급식재료 제공 -폐교구입 및 정비 -창조적마을만들기 (체험소득) -직불금시범사업 -마을잔치 및 청소, 제조작업	-경관식재 -도랑살리기 -마을잔치
마을만들기 성과 및 추진의지	공감대형성	우수	매우우수	불량
	주민참여도	매우우수	우수	매우불량
	주민역량	우수	매우우수	매우불량
	마을발전기여도	우수	우수	매우불량
애로 및 건의사항	추진의지	우수	매우우수	불량
	애로사항	-주민간의 갈등 -귀농귀촌인 등 외 지인에 대한 불신	-인적자원 부족 -사무장 부재 -리더의 지속성 -가시적 성과부재로 인한 참여도 저조	-리더 혼자 추진의 어려움
애로 및 건의사항	건의사항	-대상마을 후속관리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 -균등한 예산지원	-사무장 지원 -리더에 대한 보상	-없음

4) 홍성군

(1) 홍동면 신기리(반교마을)

신기리(반교마을)는 실제 거주 인구 80명(주민등록상 111명), 가구수 41호로 최근 5년간 4가구, 10여 명이 귀농·귀촌해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주요 농작물은 벼, 축산(1가구) 외에 밭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별한 농외소득원은 부재한 실정이다. 기타, 신기리는 4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청양-홍성간 국도가 마을을 관통하고 있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2012년 행정직원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주민 참여정도가 매우 우수하였다. 마을발전계획서는 당초 학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체험관광을 테마로 하는 계획이 작성되었으며, 최근에는 치유농업이나 미술치유 등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그림 4-3〉 홍성군 수란리(반교마을) 주민이 직접 만든 우체통 및 문패

신기리는 2008년부터 마을 자체적인 마을만들기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 5월에는 마을만들기 추진 주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매월 주민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공동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마을 꽃길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치유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미술치유의 일환으로 할머니 그림그리기를 시작하면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많은 도움이 있었으며, 할머니들의 노력으로 마을 그림지도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 할머니 그림그리기는 2015년까지는 생태미술을 전공한 경희대 한길수 교수의 재능기부로 이

루어졌으며, 그 이후에는 인근 초등학교 선생님을 초빙하다가 올해부터는 이현영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중이다. 2014년에는 마을이장 등을 중심으로 치유농업과정을 수료하고 미술심리상담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그 지역 문화는 지역민이 창출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수란, 신촌, 반교, 만경(만경마을은 중도 포기) 4개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사업비 : 29억 9,500만원)이 추진중에 있는데, 신기리(반교마을)에서는 그림이나 목공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미술 및 목공 문화센터를 조성하여 갤러리 및 체험 등을 통하여 ‘문화치유’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문화센터의 경우 110평 정도는 권역사업비에서, 120평은 마을 39가구가 출자한 3,500만원으로 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외 2015년에는 행안부 공동체동아리활성화사업(2천만 원)이 추진되고, 마을 자체사업으로는 농경지 주변 쉼터의자 조성, 태극기 달기, 문패 및 우체통 만들어 달아주기, 축제개최 등이 추진되었다.

마을만들기의 성과로, 마을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관하여 매우 우수한 변화를 보였으며 마을주민 단합과 참여도는 매우 우수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마을 주민역량의 변화는 우수한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마을만들기가 마을발전에 대한 기여한 정도는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신기리는 ‘반교 할매 화가들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TV 방송 5회 방영, 신문 80회 게재될 만큼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을이 되었고, 마을주민의 ‘행복도 증대’를 가장 큰 성과를 꼽고 있다. 신기리는 향후 전국 최초 ‘미술체험치유마을’로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을 만큼 추진의지가 매우 우수하다.

마을만들기 추진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으로 마을리더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즉, 리더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조하는 나머지 리더의 생활보장이 어렵고 이로 인해 중간에 포기하는 리더가 많으며, 모든 리더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활동비 지원, 선진지 견학 등) 제도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 가공 및 판매를 위한 인큐베이팅 시설로 ‘충남형 농식품 창업보육센터’ 조성을 건의하고 있으며, 그 외 체계적인 마을사업 정보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홍동면 효학리(학계마을)

효학리(학계마을)는 실제 거주인구 62명, 실제 거주 가구수 31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귀농 4가구가 이주해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벼, 고추, 축산(9가구) 등이며 농외소득원은 부재한 실정이다. 효학리는 친환경 농업(오리농법)이 보급된 청정한 자연생태 우수

지역으로, 마을 뒷산에 후백제 토성(성산)이 자리하고 화살촉 등이 출토되었으며, 고려장터, 3형제 바위(고인돌 추정) 등이 전래되고, 인적자원이 비교적 우수한 마을이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2012년에 추진되었으며, 마을주민 중 7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 전체가 마을만들기에 참여할 정도로 주민참여도가 우수하다. 마을발전계획서는 주로 경관환경분야를 테마로 수립되었으며, 최근 농식품부 창조적 마을만들기 경관환경분야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의 내용을 실현중에 있다.



〈그림 4-4〉 홍성군 효학리(하계마을) 전경(좌) 및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계획도(우)

효학리는 2012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 2013년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3천만 원)를 받게 되었고, 이 기금으로 왕매실 200그루, 대봉 200그루, 엄나무 등 3,200그루를 식재하고 올해 수확을 앞두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소규모 선행사업(3천만 원)으로 원두막 및 안내판 설치, 저온저장고 6동, 장독대 조성 등, 그리고 같은 해 도랑살리기사업(3천만 원)도 추진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농식품부 창조적 마을만들기 경관환경분야 사업(5억 원)을 통하여 퇴미산 등산로, 게이트볼장, 쉼터 및 체육시설, 야간가로등 등이 조성되고 있다. 마을 자체사업으로는 해마다 연 5회 정도 마을 제초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해바라기 영농조합법인’ 출자(남자 12명 각 110만 원, 여자 12명 각 10만원)를 바탕으로 약 1,500평 규모에 해바라기를 식재하고 가공 판매할 예정이다.

마을만들기의 성과로, 마을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관하여 우수한 변화를 보였으며 마을 주민 단합과 참여도는 매우 우수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마을 주민역량의 변화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마을만들기가 마을발전에 대한 기여한 정도는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효하리는 향후 마을 인근에 요양시설 조성 등을 희망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마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매우 우수하다.

마을만들기 추진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으로 마을사업 관련 문서작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행정서류의 정리 및 관리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등을 마을주민이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작성방식을 간단명료하게 하거나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해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마을만들기가 처음에는 주민들의 기대감으로 시작하였다가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주민이나 마을에서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들 마을들이 다시 기대를 갖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외 마을만들기를 시작하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팜플렛 제작 등 마을홍보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였다.

(3) 결성면 교촌리

교촌리는 실제 거주인구 90명, 실제 가구수 38호 정도의 농촌마을로, 최근 5년간 3가구, 10여 명이 귀농·귀촌해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 마을의 주요 농작물로는 벼, 고추, 감자, 고구마, 한우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농외소득원은 부재한 실정이다. 교촌리에는 향교와 우물 등의 자원이 있는데, 향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우물은 과거 정월대보름 우물제를 지내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2013년에 참여하였으며, 당시 출향인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나 청년회장이 교체되면서 포기하게 되었고, 교육 등의 주민참여도 마을내 교육은 다수가 참여하였으나 마을외부에서의 교육은 몇 명만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교촌리가 마을만들기를 포기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주민갈등에 있다. 즉, 전 마을이장과 추진위원장의 갈등과 마을 주민간의 내분이 있었으며, 서로간의 불신과 불만(특히, 귀농인을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마을만들기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발전계획서는 주로 친환경 농업, 도농교류, 경관 등을 테마로 작성되었다.

교촌리는 2013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이후 소규모 선행사업(1천만 원)으로 마을 안길에 철쭉, 조팝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그 외 마을만들기(마을사업)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기타, 3년 전부터 의료 및 농촌 봉사활동으로 매년 60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향교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고, 공동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재리는 아직까지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중소농 중심의 농업, 농산물가공 및 직거래 등의 농업6차산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추진의지나 주민 참여 등의 여건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마을만들기 관련 건의사항으로는 마을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지속적으로 주민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조직(중간지원조직 등)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표 4-5〉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홍성군 대상마을 현장 실태조사 결과

구 분		논산시		
		홍동면 신기리	홍동면 효학리	결성면 교촌리
일반현황	인구(가구수)	80명(41가구)	62명(31가구)	90명(38가구)
	최근5년간 귀농귀촌수	4가구, 10명	4가구	3가구, 10명
	소득원	농업	농업	농업
마을만들기 추진실태	마을만들기 추진연도	2012년	2013년	2013년
	주민참여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마을발전 계획서 테마	농촌체험관광	경관환경	농업, 도농교류, 경관
	주요 추진 마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주민 결의대회 개최 -공동 특용작물재배 -마을 꽃길 조성 -할머니 그림그리기 (재능기부 활용) -치유농업과정수로 -미술심리상담자격 -권역사업 -공동체통아리사업 -마을그림지도제작 -쉼터의자 조성 -태극기 달기 -문패,우체통 달기 -축제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선행사업 -최우수마을선정 (경관식재 등) -해바라기영농조합 (해바라기 식재) -도량살리기 -창조적마을만들기 (경관환경) -제조작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선행사업 (경관식재) -의료봉사활동 -향교활용 교육활동 -공동농업활동
	공감대형성	매우우수	우수	매우불량
마을만들기 성과 및 추진의지	주민참여도	매우우수	매우우수	불량
	주민역량	우수	매우우수	매우불량
	마을발전기여도	우수	우수	매우불량
	추진의지	매우우수	매우우수	불량
애로 및 건의사항	애로사항	-리더 지원 미흡	-서류작성의 어려움 -마을홍보의 어려움	-주민갈등 -귀농인 주민불인정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더인센티브제도 -마을사업정보제공 -충남형 농식품 창업보육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작성 지원 (중간지원조직 등) -포기마을 지원 -마을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사업 정보제공 -주민변화 주도 조직 설치

3. 소결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2012년과 2013년에서 육성된 마을 중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마을 모두 과소화·고령화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소규모의 귀농·귀촌 인구가 소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의 주소득원은 농업이고 농외소득원으로 몇몇 마을에서 도농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만들기 추진이 우수한 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의 현장실태조사 결과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우수마을은 마을학교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가 우수 또는 매우 우수하였으며, 마을발전계획서의 테마도 체험소득, 경관환경, 문화복지 등 비교적 명확한 테마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된 반면, 비우수마을은 주민들의 참여도가 대체적으로 불량하고, 마을발전계획서의 테마 역시 대체적으로 단순한 농업소득이나 기초생활환경정비 등 숙원사업에 맞춰 작성이 되었다. 마을만들기 성과 및 추진의지에 있어서도 우수마을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수한 실태를 보였으나, 비우수마을은 공감대 형성, 주민 참여도, 주민역량, 마을발전에 대한 기여도, 추진의지 모두 불량한 실태를 보였다.

마을만들기를 중도에 포기한 마을이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주민간의 갈등 및 불신’을 들고 있다. 추진위원장과 이장의 갈등, 추진위원장 또는 이장과 마을주민의 갈등, 마을원주민과 귀농·귀촌인과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불신이 커지고 이로 인해 마을만들기 추진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즉각적인 후속사업의 부재’도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즉, 마을만들기 추진 당시에는 참여주민의 마을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이후 바로 후속사업이 없음으로 인하여 실망감이 커지고 참여율 저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기타, ‘마을이장의 교체로 인한 후속 리더의 부재’도 원인으로 들고 있다.

마을만들기 추진에 있어 정책건의 사항으로는

첫째, ‘인적자원’과 관련하여 마을리더나 중요 인력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대부분의 마을에서 추진위원장 등의 마을 리더는 보상 없는 무조건적인 봉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소한의 활동비 정도는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사무장에 대해서도 마을운영이 마을사업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사무장을 고용할 수 있는 급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열정 있는 마을리더를 마을당 최소 5명 정도는 육성하도록 하고, 귀농·귀촌인 등을 마을의 새로운 이적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추진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체계적인 마을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추진뿐만 아니라 이후 후속적으로 마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마을관리가 필요하고, 관련하여 마을사업 등의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을 건의하고 있다. 특히, 마을의 여건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마을의 역량에 맞는 맞춤형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담당 행정공무원의 지속적인 보직수행(최소 5년 이상)을 담보하고, 마을주민에게 마을사업 등의 관련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도록 창구단일화 등의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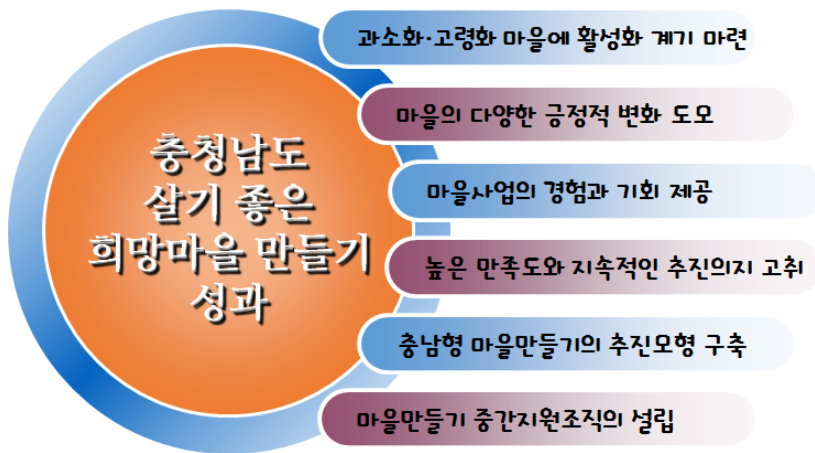
기타 사항으로는 추진위원장과 이장 등의 추진주체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지침이나 매뉴얼이 필요하고, 마을만들기 추진에 대한 마을주민의 주인의식(책임과 의무)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문서작성 등)이나 역할을 대행 또는 지원해주고 주민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제5장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과 및 정책과제

1.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과 및 문제점

1) 마을만들기의 성과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첫째, 과소화·고령화 마을에 활성화의 계기 마련, 둘째, 마을의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 도모, 셋째, 마을사업의 경험과 기회 제공, 넷째, 마을만들기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추진의지 고취, 다섯째, 충남형 마을만들기의 추진모형 구축, 여섯째,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5-1〉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과

(1) 과소화·고령화 마을에 활성화의 계기 마련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일완으로 2012년과 2013년에 육성된 마을에 있어 100명 이하의 마을이 33.3%를 점유하고,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8.9%를 점유할 만큼 농어촌마을의 과소화·고령화의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고, 이는 비단 마을만들기 대상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농어촌마을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과소화·고령화가 심화된 마을이 스스로의 정보와 차체 역량으로 다양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과 기타 마을사업 등과 같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어려운 장벽을 낮추어 준 계기가 바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라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어촌지역개발정책과 사업은 비교적 여건과 역량이 우수한 마을에 맞춰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에 의해 대상마을이 선정되고 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하고 역량이 낮은 과소·고령마을은 이러한 정책영역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가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즉, 그동안 소외되었던 수많은 농어촌마을들이 대상마을로 선정되고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마을발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 그리고 마을발전의 미래상을 갖도록 함으로써 마을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물론, 한계마을과 같이 마을의 역량과 여건이 모두 소진된 재생의 여지가 희박한 마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와는 별도의 맞춤형 정책대안을 마련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마을의 다양한 긍정적 변화 도모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주민주도의 내발적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마을발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의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마을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는 노력을 진행해 왔다. 특히, 마을발전계획 수립의 목적은 첫째, 침체되어 가는 마을에 마을발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마을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둘째,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마을발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계기를 마련함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올해 추진 5년차를 맞이하면서, 처음 시

작할 당초 우려와는 달리 마을현장에서 많은 긍정적 변화와 움직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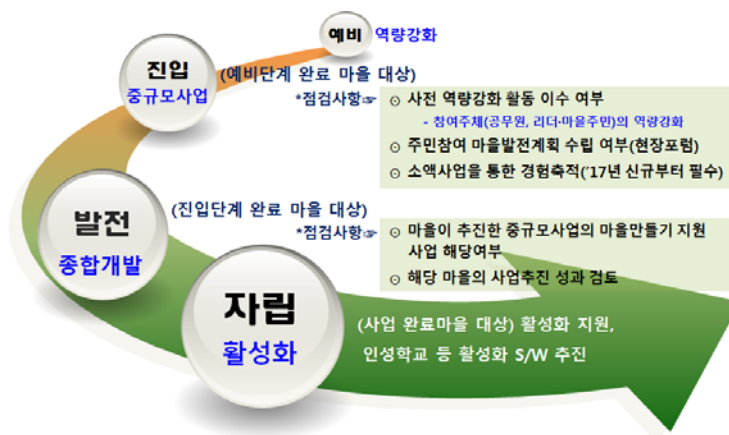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초기에 대상이 되었던 마을들의 73.8%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이야기 하고 있고, 실제 75.4%는 마을만들기로 인해 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의식변화에 대해서 79.8%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주민 단합과 참여도 변화는 70.6%, 주민역량의 변화는 71.1%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을발전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동기부여 및 주민 참여도 확대, 주민역량의 증가는 주민주도의 내발적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20~30%의 마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마을사업의 경험과 기회 제공

마을만들기의 경험이 전무하고 역량이 미비한 마을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히,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일정한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마을은 마을사업 선정 및 추진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그림 5-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단계별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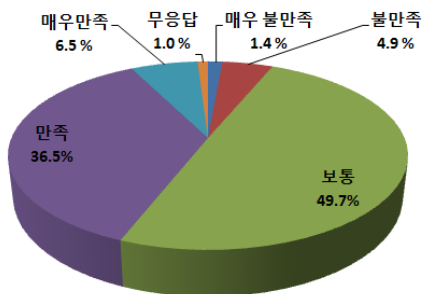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마을사업의 경험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진입장벽을 허물어 주는 역할을 해왔다. 우선, 마을학교 및 포럼 운영을 통하여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을학교를 통해 649개 마을이 육성되고, 또한 2015년까지 현장포럼을 통해 168개 마을이 육성되었다. 그리고 소규모선행사업 지원을 통해 마을사업의 사전역량을 강화하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173개 마을에 4,375백만 원이 투자되었다. 소규모선행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선정평가에서 가산점으로 작용하여 일반마을에서 중앙정부 마을사업으로의 진입을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실제, 이러한 성과로 2012년과 2013년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중 99.0%가 마을 스스로의 자체 사업을 추진한바 있고, 67.5%의 마을은 소규모 선행사업을 포함한 1억 원 미만의 마을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7.9%의 마을에서 1억 원 ~ 5억 원의 중규모 공공보조사업을, 3.2%의 마을에서 5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공공보조사업은 3.2%의 마을에서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전혀 추진실적이 없는 마을은 0.4%(2개 마을)에 불과하여,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계기로 대부분의 마을에서 마을사업의 경험과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경험이 기반이 되어 더 많은 마을들이 육성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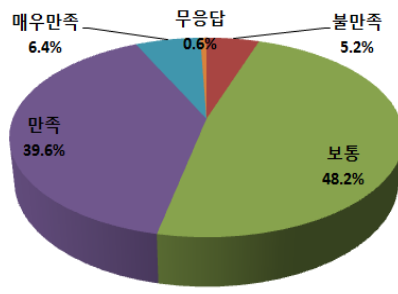
(4)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추진의지 고취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육성된 마을에 대해 당시 주민의식 조사 결과²⁾를 보면 마을발전계획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2012년도에는 만족이라는 응답이 43.0%,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7.9%로 나타났으며, 2013년도에는 만족이 46.0%, 불만족이 5.2%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마을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2012년도에는 만족이라는 응답이 40.6%, 불만족이 6.1%로 나타났으며, 2013년도에는 만족이 45.4%, 불만족이 4.6%로 나타나 역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자료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연구 2013-047, 2014-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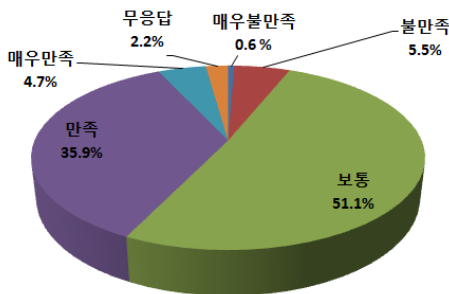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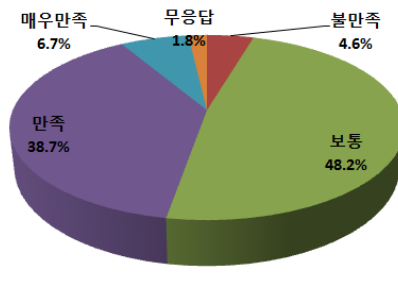
2013년

자료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연구 2013-047, 2014-096

〈그림 5-3〉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마을발전계획 수립내용에 대한 만족도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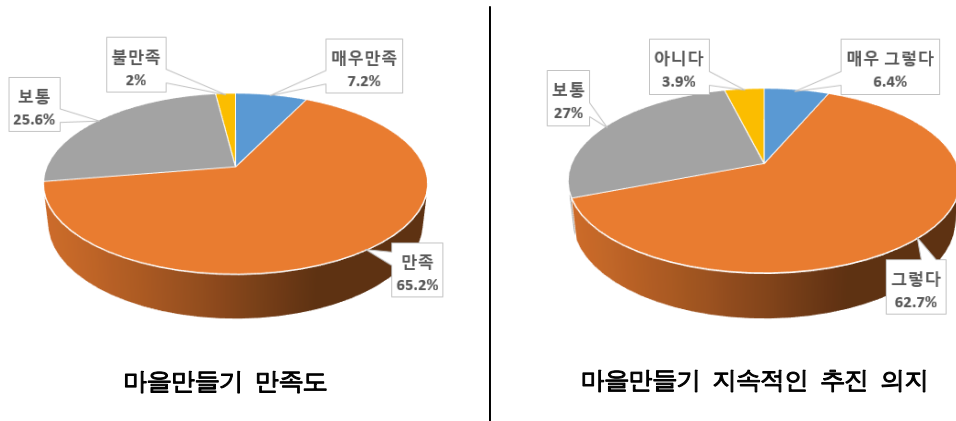
2013년

자료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연구 2013-047, 2014-096

〈그림 5-4〉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이렇게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육성된 마을들을 대상으로 3~4년의 시간이 흐른 올해 5월경에 이루어진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2.4%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불만족의 의견은 2.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대상마을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마을이 향후 마을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원하고 있으며(69.1%), 마을만들기의 테마로는 ‘마을경관 및 환경 정비’와 ‘소득사업 추진’이 가장 많고, 이 외에도 ‘농촌체험관광 추진’,

‘문화·복지 여건의 개선’ 등의 다양한 분야의 마을사업이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어,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의지가 고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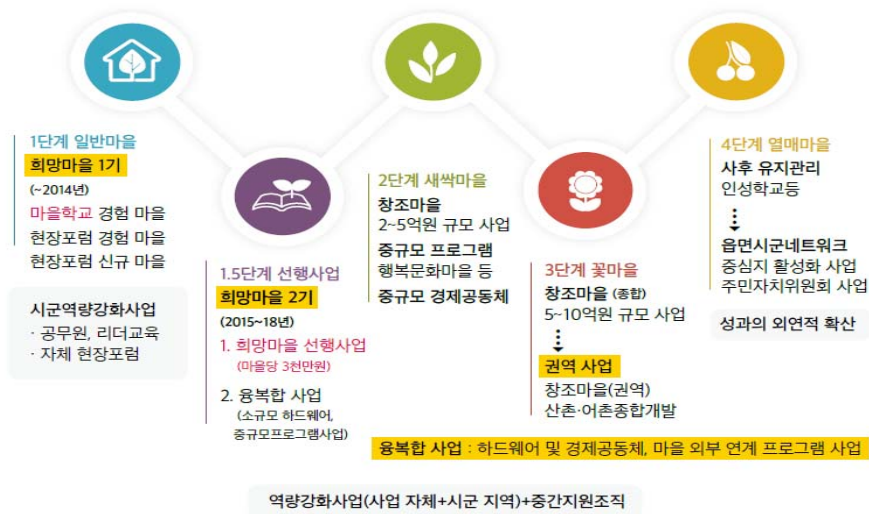


〈그림 5-5〉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만족도 및 지속적인 추진 의지

(5) 충남형 마을만들기의 추진모형 구축

2012년부터 시작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게 시작한 후발주자였으나 해년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모형을 확립하였고, 최근에는 오히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창조적 마을만들기의 단계별 추진체계 도입 등에 벤치마킹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의 마을사업 선정과 국비확보에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타시도 등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추진에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종 완성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추진모형은 다음 <그림 2-1>와 같다. 즉, ‘일반마을’은 농식품부 색깔있는 마을만들기와 통합하여 연간 65개 마을에 마을당 1천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이렇게 육성된 마을에 대해 본격적인 마을사업 추진에 앞서 연간 70개 마을에 마을당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소규모 선행사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싹마을’은 소규모 마을사업(창조적 마을만들기 5억 원 이하 마을단위 사업), ‘꽃마을’은 중·대규모 사업(창조적 마을만들기 5억 원 초과 권역단위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며, ‘열매마을’은 마을사업 추진에도 활성화되지 못한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 사업이나 다양한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마을사업 길라잡이

〈그림 5-6〉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 모형

(6)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루어진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과 시군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을 들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현장(마을)을 연결하여 마을만들기 추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으로,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립’은 충청남도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① 현장밀착형 지역인재 확보, ② 정보의 공유와 사업지원체계 정비, ③ 광역과 기초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2019년 민간법인으로 독립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여 지난 2016년 10월 11일 설립되었다. 본 센터의 설립은 향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고,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기반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충남 시군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5개 시·군(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을 시작으로 2016년 4개 시·군(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총 9개 시군에서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마을만들기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마을만들기의 문제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과와 함께 향후 해결해야할 문제점 및 추진시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으로서는 첫째, 인적자원의 부족 및 리더의 과도한 희생, 둘째, 주민 갈등과 역량 부족의 문제, 셋째, 지속적인 마을관리체계의 부재, 넷째, 경제적인 측면의 과도한 집중, 다섯째, 성숙한 마을만들기 추진의식의 부족, 여섯째,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의 미흡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5-7〉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문제점

(1) 인적자원의 부족 및 리더의 과도한 희생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추진은 과소화·고령화 마을에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마을의 인적자원 부족은 마을만들기 추진의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즉, 마을발전에 대한 동기부여와 추진하려는 의지가 형성되었더라도 이를 앞에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의욕적인 리더나 인력이 없다면 마을만들기 추진에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농어촌마을에서 부딪치고 있는 대표적인 어려움이기도 하다. 실제, 2012년과 2013년도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해 육성된 대상 마을에 있어 31.6%의 응답자가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을 마을만들기 추진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리더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는 점은 리더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마을 이장 또는 추진위원장 등의 마을 리더가 보수가 없는 희생과 봉사로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있고, 이로 인한 리더의 과중한 역할과 피로감 누적 등으로 마을만들기가 도중에 중단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로 마을리더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비나 역할수행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새로운 리더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 주민 갈등과 역량 부족의 문제

2012년과 2013년도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해 육성된 대상마을에 있어 마을만들기를 중도에 포기한 마을이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주민간의 갈등 및 불신’을 들고 있다. 추진위원장과 이장의 갈등, 추진위원장 또는 이장과 마을주민의 갈등, 마을원주민과 귀농·귀촌인과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불신이 커지고 이로 인해 마을만들기 추진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 갈등의 문제는 비단 새로 육성되는 마을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선 역량이 있는 마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마을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마을학교 및 포럼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의식, 참여도, 역량 등에 70%가 넘는 마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 추진의 제약요인으로 여전히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의지 부족(16.8%)’, ‘마을주민의 역량 및 경험 부족(14.1%)’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마을학교 및 포럼 운영 등을 통하여 교육을 받을 당시에는 마을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도, 추진의지 등이 높게 형성 되었다라고 후속적인 역량강화나 마을사업 경험이 없이 시간이 흐르면 주민의식과 역량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3) 지속적인 마을관리체계의 부재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해 육성된 대상마을에 있어 마을만들기를 중도에 포기한 마을이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앞서 이야기 한 ‘주민간의 갈등 및 불신’과 함께 ‘즉각적인 후속사업의 부재’도 중요하게 들고 있다. 즉, 마을만들기 추진 당시에는 참여주민의 마을발전에 대

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이후 바로 후속사업이 없음으로 인하여 실망감이 커지고 이후 참여율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과 2013년도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해 육성된 대상마을 중 67.5%의 마을이 소규모 선행사업을 포함한 1억 원 미만의 공공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조사결과는, 역으로 32.5%의 마을에서는 마을자체사업 제외한 후속적인 공공보조 마을사업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 변화가 없었다는 21.3%의 마을, 그리고 마을만들기 추진의 제약요인으로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부족',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의지 부족', '마을주민의 역량 및 경험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지속적인 마을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주민들은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예산 마련과 지원 확대(31.5%)'와 함께 '마을역량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관리(25.7%)'를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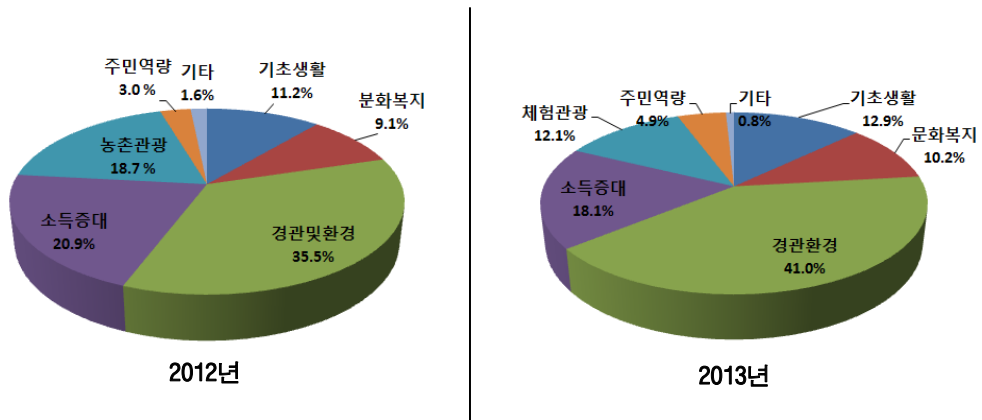
(4) 경제적인 측면의 과도한 집중

마을만들기의 이상적인 목적은 주민의 주도에 의해 마을발전을 견인하는 내발적 발전에 있으며, '주민의 주도'라는 것은 결국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참여 및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마을만들기를 통해 마을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이는 가장 바람직한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곧 마을 발전 견인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관이 주도하는 형태의 마을만들기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적위주의 성과에 치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마을사업의 대부분이 하드웨어(H/W)사업 중심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게 되었다.

물론, 마을만들기 추진에 있어 마을의 경제적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영역임은 사실이지만, 마을만들기의 궁극적인 목적을 과도하게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칫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이 소홀해지고 과도한 경쟁위주의 마을만들기로 퇴색될 우려가 있다. 실제, 과도한 소득사업(농촌체험관광 등을 포함)의 추진을 통하여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마을공동체에 금이 가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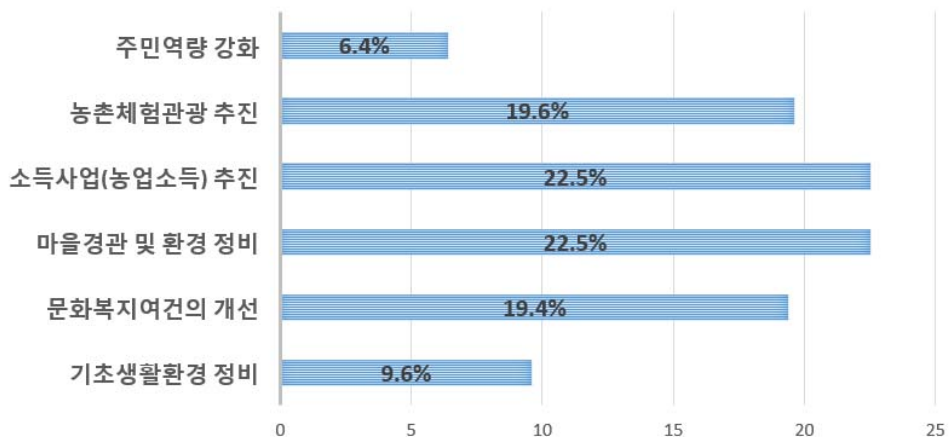
2012년과 2013년도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해 육성된 대상마을에서 당시 수립된 마을

발전계획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경관 및 환경’의 테마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마을이 ‘소득증대’ 및 ‘농촌관광’을 테마(2012년 39.6%, 2013년 30.2%)로 하고 있으며, 같은 마을에서 지난 5월에 조사한 향후 마을만들기의 주된 테마에 관한 질문에서도 42.1%가 소득사업 및 농촌체험관광의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마을만들기의 주된 테마에 해당되는 결과이며, 실제로는 주된 테마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마을에서 소득 및 농촌체험관광 관련 마을사업을 추진 하길 희망하고 있다.



자료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연구 2013-047, 2014-096

〈그림 5-8〉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대상마을의 마을발전계획 주요 테마



〈그림 5-9〉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대상마을의 향후 마을만들기 희망 테마

특히, 농촌체험관광은 2000년대 이후 무분별한 다양한 농어촌체험마을 육성을 통하여 이미 포화상태라 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만 보더라도 유사한 테마를 갖는 체험마을들이 지역 내에서 서로 과도한 소모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구조조정이나 테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단 다년간의 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 역량이 강화된 농어촌체험마을에서도 체험관광의 운영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새롭게 육성된 마을이 막연하게 체험관광분야에 뛰어들다는 것은 자칫 무모한 시도가 될 수 있다.

(5) 성숙한 마을만들기 추진의식의 부족

2012년과 2013년도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해 육성된 대상마을에 있어, 향후 마을만들기 추진을 통한 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역할에 대해 외부의 도움보다는 마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내발적 역량을 우선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56.2%로 과반수이상을 점유하였으나, 반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미비하고 무엇보다 공공의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35.9%)’는 의견과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7.9%)’는 의견도 상당수 제시되어 마을주민의 내발적 역량보다는 외부역량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마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역량을 행정과 전문가 등의 외부역량에 의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마을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 처음부터 무조건 외부역량에 의존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내부역량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기존의 공공주도 하향식 개발방식을 답습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마을만들기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의 공공보조사업을 통해 사업을 지원받은 마을에서도 보다 성숙한 마을만들기 추진의식은 필요하다.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 등에 의해 대상마을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마을이 존재하게 되고, 선정된 마을은 국민의 세금으로 상대적인 혜택을 받은 대신에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성과가 발생할 경우 그 성과의 일정부분을 다시 사회에 환원(예로, 상대적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마을을 멘토링하고 동일한 기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 마을은 극히 드물다.

성숙한 마을만들기의 추진의식은 곧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의 기반이 된다.

(6)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의 미흡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물론, 앞으로도 해결해야할 다양한 과제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충청남도의 마을만들기가 아직까지는 지자체의 정권 교체 또는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과거, 충남도만 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우수한 정책과 사업들이 정권교체와 함께 사라져버린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도는 마을만들기 지속가능한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노력중의 하나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이다. 지난 2016년 10월 11일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시군차원에서도 9개 시군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인 정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시군에서 충남도의 마을만들기 추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이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추진을 통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러한 모델은 광역차원에서 보다 시군이나 지역차원으로 전달이 되어 각 지역에 맞는 모델로 다시 구축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각 시군에서 편승해 가는 형태로 시군이나 지역의 자체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만약 충청남도 마을만들기가 중단될 경우 시군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시군이나 지역의 자체적인 지속가능한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영역의 역량보다는 공공의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가장 바람직한 마을만들기의 형태는 민간영역에서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민간영역의 움직임 보다는 공공의 움직임에 의해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영역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마을만들기의 지속적인 추진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민간영역 스스로의 역량강화와 함께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정책과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향후 과제를 정리하면 첫째, 체계적인 마을관리시스템의 도입, 둘째, 마을 리더 및 인적자원 유치, 셋째,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기반의 마련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5-10〉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정책과제

1) 체계적인 마을관리시스템의 도입

(1)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모든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마을만들기 추진에 따라 ‘마을만들기 시작단계의 마을’, ‘마을만들기 추진중(또는 완료된) 마을’, ‘마을만들기 추진경험이 전무한 마을’ 등 3가지 역량 단계별 또는 마을 유형별 맞춤형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첫째, ‘마을만들기 시작단계의 마을’에 대해서는 ① 주민 동기부여 형성 여부 및 추진의지, ② 마을발전계획 실현 여부, ③ 주민역량의 변화 및 지속적인 역량강화 여부, ④ 후속 마을사

업 추진여부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마을만들기 시작 당시 마을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동기부여가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수립된 마을발전계획에 대해 내용이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지, 마을만들기 육성 이후 후속적인 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향후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특히, 마을만들기 시작단계에 해당되는 마을들의 상당수가 마을만들기 육성당시 동기부여와 추진의지가 높아졌으나, 이후 후속사업과 지원이 없어 실망감과 함께 다시 추진의지가 낮아지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는 상황으로, 후속적인 마을만들기의 추진 실태를 반드시 파악하고 모니터링 하여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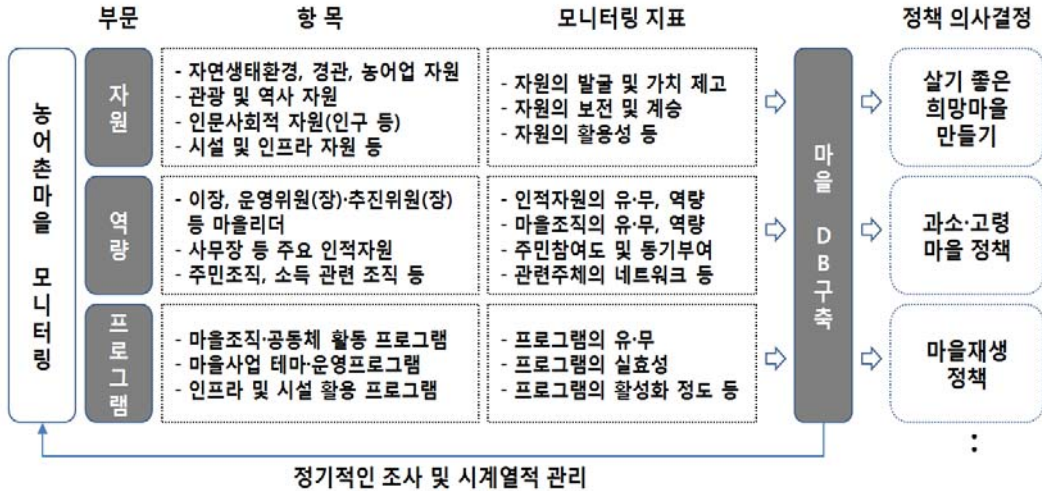
둘째, ‘**마을만들기 추진중(또는 완료된) 마을**’에 대해서는 ① 마을사업의 테마 및 사업내용(사업비 등), ② 사업 추진(운영) 주체 및 역량, ③ 주민 참여도 및 갈등 여부, ④ 마을 투자자원(하드웨어 시설물 등) 활용 실태, 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활성화 여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마을사업이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마을에 대해 어떠한 테마로 어떠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마을사업의 추진 또는 운영 주체는 누구이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마을리더 및 추진위원회 등 직접적인 추진주체 이외의 마을주민의 참여도는 어떻고 주민간 갈등은 없는지, 마을에 투자되어 조성된 하드웨어 시설물 등은 잘 활용되고 운영되는지, 하드웨어사업 이외의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은 활성화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마을만들기 추진경험이 전무한 마을**’에 대해서는 ① 인구 및 고령인구 현황(시계열 변화), ② 인적자원 및 역량, ③ 잠재자원(마을의 유·무형 자원), ④ 마을만들기 참여 및 마을발전에 대한 의지 여부, ⑤ 한계마을 여부 및 재생 가능성 진단 등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점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추진이 2015년부터는 신규마을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보다는 기존에 발굴된 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마을만들기에서 소외된 마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여, 마을의 자원과 역량이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마을만들기 영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과소화·고령화로 인하여 마을의 여건과 역량이 한계에 달한 마을에 대해서는 ‘한계마을정책’과 같은 별도의 정책영역을 설정하여 재생 또는 재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표 5-1〉 마을만들기 추진에 따른 농어촌 마을 유형별 모니터링 기본방향

마을유형	모니터링 기본방향 (주안점)
마을만들기 시작 단계의 마을	① 주민 동기부여 형성 여부 및 추진의지 ② 마을발전계획 실현 여부 ③ 주민역량의 변화 및 지속적인 역량강화 여부 ④ 후속 마을사업 추진여부 및 추진계획
마을만들기 추진중 (또는 완료된) 마을	① 마을사업의 테마 및 사업내용(사업비 등) ② 사업 추진(운영) 주체 및 역량 ③ 주민 참여도 및 갈등 여부 ④ 마을 투자자원(하드웨어 시설물 등) 활용 실태 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활성화 여부
마을만들기 추진경험이 전무한 마을	① 인구 및 고령인구 현황(시계열 변화) ② 인적자원 및 역량 ③ 잠재자원(마을의 유·무형 자원) ④ 마을만들기 참여 및 마을 발전에 대한 의지 여부 ⑤ 한계마을 여부 및 재생 가능성 진단

또한, 구체적인 농어촌마을의 모니터링은 ‘자원’, ‘역량’, ‘프로그램’의 3가지 측면에서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DB구축을 통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관리하도록 한다.³⁾



자료 : 충남연구원 전략과제연구 2015-11

〈그림 5-11〉 마을 모니터링 및 관리 개념도

3) 자료 : 조영재 외, 2015,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 충남 농어촌 마을의 실태, 충남연구원 2015년 전략연구과제

(2) 단계별 마을육성 및 마을사업 기획 제공

농어촌마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마을육성을 위한 교육과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이 수립, 그리고 마을역량에 맞는 마을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마을만들기 시작단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색깔있는마을만들기 현장 포럼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한번 추진된 마을에 대해서는 다시 대상마을로 선정되지 못하고, 또한 이후 마을의 실태 및 역량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및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농어촌마을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유형에 따라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로 구분하여 풀(Pool)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① 단계별 마을 인증제도 도입, ② 역량별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운영, ③ 마을발전계획 및 마을사업계획 등 마을계획 수립, ④ 마을사업 기획 제공 및 관리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첫째, ‘**단계별 마을 인증제도**’는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유형에 따라 마을의 역량에 맞는 단계를 인증해주고 관리하는 제도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 마을의 역량을 평가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명의로 인증해 줌으로 인증서에 대한 신뢰와 위상을 제고하고,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마을의 역량의 변화에 맞는 단계로 인증등급을 재조정하도록 한다. 인증된 마을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수여하거나 팻말 또는 표지판을 세워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5-12〉 농어촌마을의 다양한 인증 사례

둘째, **역량별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운영**은 최초 마을만들기 대상마을로 선정 육성될 때뿐만 아니라 마을의 역량의 정도와 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즉,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단계별 마을유형에 맞게 ‘일반마을’은 기존과 같이 마을학교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싹마을’은 소규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 ‘꽃마을’은 중·대 규모 사업에 필요한 교육, 마지막 ‘열매마을’은 기존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교육 및 컨설팅과 관련된 예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역량강화사업비(2억원 이하)를 활용하도록 하며, 유형별 주민교육 프로그램 예시는 다음 그림 5-12와 같다.

대상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동기부여 • 마을만들기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지식함양 • 소규모사업 추진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적용성 강화 • 중·대규모사업추진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강화 • 마을활성화 역량강화
일반 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마을의 갈등, 지역자원, 경영, 경관에 관한 이해 	환경변화속에서 마을경영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실질적으로 마을법인을 구성하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모습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의사소통 • 갈등관리 사례 • 농어촌변화와 마을경영 사례 • 문화프로그램 유형/개발전략 • 마을법인 구성 • 경관자원활용 사례 • 벤치마킹 	마을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동기를 유발하는 변화주도의 리더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변화 주도리더십 • 동기유발과 임파워먼트 • 리더십/비전수립 • 문화프로그램 기획요소/아이디어 도출/세부계획/운영방안 • 마을사업계획서 작성 • 경관주민협약/할 일 워크숍 • 마케팅 계획수립 홍보마케팅 	일반마을 · 새싹마을 · 꽃마을 · 종합
사업 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이해 • 지역자원이해 및 테마발굴 • 농촌마을 경영이해 • 농어촌마을 경관이해 	환경변화속에서 창의적 기획과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을 일으키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비즈니스 리더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 갈등 사례 • 농어촌마을 변화 방법론 • 벤치마킹 • 마을법인구성/운영 • 창의적 기획력 • 벤치마킹 •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 이해 	주민참여기반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분석과 운영전략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마을사업의 달인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 매뉴얼 • 조직구성 리더십과 지속적 갈등 관리 • 문화프로그램 기획서 작성 • 주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 • 시설관리 타당성 분석/사업운영 조직화 전략 • 지속적인 마을사업 유치방안/사후관리 • 경관가꾸기 실습 • 마을사업 홍보와 마케팅 계획 활용 	일반마을 · 새싹마을 · 꽃마을 · 종합

자료 : 충남연구원 전략과제연구 2011-04

〈그림 5-13〉 마을만들기 유형별 주민교육 프로그램 예시

셋째, **마을발전계획 및 마을사업계획 등의 마을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현재는 최초 마을만들기 대상마을로 선정 육성될 때에만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후의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계획수립이 아닌 컨설팅회사나 외부전문가가 주도하는 사업계획수립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마을발전계획서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 사업비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서 수립, 사업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등에서 주민이 주도하고 외부역량이 지원해주는 형식의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단계별 마을유형 중 ‘일반마을’에 대한 마을발전계획 수립의 취지가 퇴색된 측면이 없지 않는 상황에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 동기부여 및 마을 미래상 설계 등의 본래 목적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고,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에 대해서는 별도의 마을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과 마을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마을사업 기회 제공 및 관리**를 통하여 준비된 마을이 적절한 시기에 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유형별 또는 역량별 마을풀(Pool)을 관리하여 마을에 적합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할 만한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해당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표 5-2〉 단계별 마을육성 및 마을사업 기회 제공 개요

구 분	내 용
단계별 마을인증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마을의 역량에 맞는 단계를 인증해주고 관리하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역량 평가 → 도지사(또는 시장·군수) 인증 - 인증서 또는 인증 팻말·표지판 설치 -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인증등급 재조정
역량별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마을역량의 정도와 여건에 맞게 지속적인 교육·컨설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마을 :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 새싹마을 : 소규모 사업추진 역량 교육 - 꽃 마을 : 중·대규모 사업추진 역량 교육 - 열매마을 : 시설물 활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컨설팅)
마을발전계획 및 마을사업계획 등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마을발전계획뿐만 아니라 단계별 마을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동기부여 및 미래상 설계를 위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 주민 주도의 사업계획(예비계획, 기본계획 등) 수립
마을사업 기회 제공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준비된 마을이 적절한 시기에 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또는 역량별 마을풀(Pool) 관리 - 마을에 적합한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 마을에서 충분한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기회제공

(3) 마을사업 평가 및 환류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방식은 사전평가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중간평가나 성과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양한 마을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도 대상마을 선정과정에서 비교적 엄격한 평가기준에 의해 예비계획서와 대상마을의 역량을 평가하는 반면, 한번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지원을 통해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주민갈등 등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마을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성과평가)를 도입하고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대상마을의 합리적인 선정과 마을사업 성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전평가’의 경우, ① 주민참여를 통해 예비계획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② 마을의 잠재력 및 잠재자원 등 여건에 부합하게 예비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③ 계획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마을주민의 역량과 조직체계가 적절히 구축이 되었는지, ④ 마을육성의 역량별 단계를 밟아 마을사업 추진의 준비가 되어있는지, ⑤ 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주민의 추진의지가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⑥ 사업비 투자비용 대비 효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대상마을을 선정하도록 한다.

둘째, ‘중간평가’는 ① 당초 사업계획(예비계획, 기본계획 등)의 내용이 예정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② 마을의 여건 및 마을주민의 역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③ 마을사업 완료 후를 대비한 마을주민의 준비상황은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④ 사회적 여건 및 수요 변화에 따른 당초 사업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평가(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사업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수정·보완 후 진행하도록 한다.

셋째, ‘사후평가’는 ① 당초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② 집행완료 후 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③ 하드웨어(H/W)시설이 적절히 활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④ 당초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⑤ 주민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후속적인 마을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환류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마을사업 투자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마을리더 및 운영주체의 무책임하고 의지가 낮은 경우에는 이후 마을사업의 대상마을 선정에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한다.

〈표 5-3〉 마을사업 평가 및 환류 개요

구 분	내 용
사전평가 (대상마을 선정)	① 주민참여를 통해 예비계획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② 마을의 잠재력 및 잠재자원 등 여건에 부합하게 예비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③ 마을주민의 역량과 조직체계가 적절히 구축이 되었는지 ④ 마을육성의 역량별 단계를 밟아 마을사업 추진의 준비가 되어있는지 ⑤ 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주민의 추진의지가 형성되었는지 ⑥ 사업비 투자비용 대비 효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후 대상마을 선정
중간평가 (모니터링)	① 당초 사업계획(예비계획, 기본계획 등)의 내용이 예정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② 마을의 여건 및 마을주민의 역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③ 마을사업 완료 후를 대비한 마을주민의 준비상황은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④ 사회적 여건 및 수요 변화에 따른 당초 사업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평가(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사업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수정·보완 후 진행
사후평가 (성과평가)	① 당초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② 집행완료 후 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③ 하드웨어(H/W)시설이 적절히 활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④ 당초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⑤ 주민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후속적인 마을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구축

2) 마을리더 및 인적자원의 유치

(1) 인적자원의 활동비 및 인건비 지원

농어촌마을은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적자원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안정정인 리더 및 인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마을이장, 추진위원장 등 마을리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사업 추진에 있어 대부분의 마을에서 리더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상황으로, 마을 이장 또는 추진위원장 등의 마을 리더가 보수가 없는 희생과 봉사로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있고, 이로 인한 리더의 과중한 역할과 피로감 누적 등으로 마을만들기가 도중에 중단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마을이장 또는 추진위원장 등 마을사업 리더에 대해 활동비나 역할수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리더의 활동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단, 마을에서 역량있는 리더가 부재할 경우 외부에서 우수한 리더를 유치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상금 제

도를 외부인적자원 유치의 비용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사무장 등의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사무장의 인건비는 대부분 권역 사업비나 체험휴양마을사업비 등에서 충당하고 있으나, 권역사업이 준공되거나 해당마을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마을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자체적으로 사무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활성화되지 못한 마을에서는 사무장의 인건비를 충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예산마련을 통해 지원하는 ‘사무장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단지, 기존의 방식대로 아무런 기준이 없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사무장의 역량에 대한 자격기준과 명확한 역할 정립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무장 지원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한다. 또한, 우수한 사무장의 유치를 위해서는 기존 120만 원 선에서 지급되고 있는 급여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필요도 있다.⁴⁾

〈표 5-4〉 인적자원의 활동비 및 인건비 지원 개요

구 분	내 용
마을이장, 추진위원장 등 마을리더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사업 리더에 대해 활동비 지원 - 마을사업 리더의 역할수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금 제도 마련 - 외부인적자원 유치의 비용으로 활용
사무장 등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장 지원제도’의 도입 - 사무장의 역량에 대한 자격기준과 명확한 역할 정립 - 사무장의 급여수준의 대폭 향상

(2)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치⁵⁾

인적자원의 문제는 대부분의 농어촌마을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로 마을활성화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마을의 인적자원으로는 이장, 추진(운영)위원장 등의 마을리더와 사무장, 다양한 마을조직의 리더 및 구성원, 귀농·귀촌인, 예술인 등의 인적자원으로 들 수 있으며, 활성화되지 못한 마을의 대부분이 이러한 다양한 인적자원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고, 보다

4) 자료 : 충남연구원 ‘전략과제연구 2015-11’를 바탕으로 재정리

5) 자료 : 조영재 외, 2015,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 충남 농어촌 마을의 실태, 충남연구원 2015년 전략연구과제

적극적인 인적자원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우수한 마을사업 리더(CEO)의 유치가 필요하다. 마을 내부적으로 마을사업 추진에 있어 리더의 역량 미흡이나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마을운영의 한계에 다다른 경우 우수한 마을사업 리더 영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아무런 이유 없이 우수한 인적자원이 침체된 마을에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사업 리더 공모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즉,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자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마을사업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 리더(CEO)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선발된 리더에 대해서는 마을소유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활용과 자유로운 운영프로그램 도입 및 경영의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며, 성과에 대한 일정비율의 급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사전에 선정된 리더와 마을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계약체결이 필요하며, 공개모집 과정에서 가능한 마을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출향인이나 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선정되도록 한다.

둘째, 귀농·귀촌인 등 기타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마을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리더의 부족도 들 수 있지만 이외에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실제 일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예술인 등 다양한 재능을 보유한 귀농·귀촌인이 마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어 이러한 인적자원의 유치는 침체된 마을을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외지인의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마을의 개방적인 의식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귀농·귀촌인 등을 마을주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과 사고를 이해하려 노력함과 동시에 마을에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귀농귀촌 인큐베이팅, 빈집과 휴경지 등 주택 및 토지(농지 등) 제공 또는 알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과 마을주민의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대학(농과대학, 지역개발학과 등) 등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 들어와 마을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대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하고,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청년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 확보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

〈표 5-5〉 우수한 인적자원 유치 개요

구 분	내 용
우수한 마을사업 리더(CEO)의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마을사업 리더 공모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향인 또는 귀농·귀촌인 등을 중심으로 유치 - 자유로운 운영프로그램 및 경영의 권한 보장 - 성과에 대한 급여 보장 - 마을과 사전협의 및 계약
귀농·귀촌인 등 기타 인적자원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귀농·귀촌인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인 인큐베이팅 - 주택 및 토지(빈집, 휴경지 등) 알선 o 지역대학 등과의 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과정 연계 활동 장려 - 청년창업의 기회 제공

자료 : 충남연구원 전략과제연구 2015-11

3)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기반 마련

(1) 시·군 자체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확립

현재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추진은 충남도의 추진체계에 각 시군에서 편승해 가는 형태로 시군이나 지역의 자체적인 마을만들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시군이나 지역의 자체적인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순수 지방비 재원에 서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이나 중앙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등 국·도비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사업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현재 순수 도비사업 또는 도비-시군비 매칭 사업(농촌현장포럼, 소규모 선행사업, 3농혁신특화사업 등)에 대해 시·군 자체의 예산확보 및 운용을 통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시·군의 행정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한다. 즉, 시·군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시·군 행정시스템 개편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현재 시·군 행정조직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을 통합하여 직접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혹은 분산 추진되고 있는 마을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조직을 선정하여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간구한다.

셋째, **시·군의 실정에 맞는 마을만들기 추진모형을 구축**한다. 현재 충청남도 마을만들기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의 단계별 추진모형을 참고하여 마을역량별 단계를 설정하거나, 또는 사회적 경제 영역 등과 같이 별도의 마을만들기 테마와 목표를 설정하여 차별화된 마을만들기 모형을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표 5-6〉 시·군 자체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확립 개요

구 분	내 용
시·군 마을만들기 추진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 지방비 재원에서 예산 마련 - 중앙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국·도비 활용 -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사업 예산 통합 관리 - 농촌현장포럼, 소규모 선행사업 등을 시·군 자체예산으로 추진
시·군 행정시스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을 통합하여 직접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 - 또는, 분산 추진되고 있는 마을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선정하여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
시·군 실정에 맞는 마을만들기 추진모형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추진모형 또는 마을역량별 단계 설정 - 별도의 마을만들기 테마와 목표를 설정하여 차별화된 마을만들기 모형을 구축

(2) 민간영역의 마을만들기 주도 확대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현재 민간영역의 역량보다는 공공의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가장 바람직한 마을만들의 형태는 민간영역에서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민간영역의 움직임 보다는 공공의 움직임에 의해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민간영역 스스로의 역량강화와 함께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마을만들기 참여주체의 확대 및 조직화**를 추진한다. 기존의 마을만들기가 농어촌마을 및 농어촌주민이라는 공간과 영역에 한정되었던 추진됨으로 인해, 농어촌주민의 역량을 뛰어넘는 문제해결과 마을발전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즉, 향후 이

리한 마을만들기 참여주체의 범주를 확대하여, 영역에 있어서는 농어촌주민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도시민, 외국관광객 등으로 마을만들기 참여를 확대하고, 범위에 있어서는 농어촌마을이라는 공간을 초월하여 마을 및 지역 공동체, 지역사회, 도시-농촌, 생산자-소비자의 범위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농어촌의 문제와 발전을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마을만들기가 되도록 한다. 특히, 기존의 희망마을만들기 협의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마을만들기 주체를 조직화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둘째, **민간영역의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영역별 주체의 조직화와 함께 다양한 영역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상호 Win-Win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한다. 예로, 농어촌체험관광과 관련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농가 및 체험농장, 권역단위 등의 협력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일반관광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단일의 마을과 조직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농어촌관광과 일반관광의 통합을 통하여 제공 가능할 것이고, 이는 곧 상호 Win-Win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공공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면, 공공의 지원이 없거나 중단되더라도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마을 멘토링 제도 도입과 마을만들기 기금마련을 확대**한다. 우선, 침체된 마을이나 마을만들기를 새로 시작하는 마을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현장전문가(마을리더 등)나 마을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멘토링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멘토링제도’는 마을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패를 극복한 기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침체를 극복하며, 마을의 실태와 잠재자원에 맞는 성공사례의 모델을 적용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멘토링제도의 멘토는 다양한 현장전문가로 구성하되, 지역(동일 시군) 내에서 활성화된 타 권역 또는 마을리더, 지역 또는 마을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마을출신으로 마을사업과 관련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출향인, 기타 현장 활동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러한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마을진단, 주민교육,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진행하도록 한다.⁶⁾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영역에서 자체적인 마을만들기 기금을 마련하도록 한다. 즉,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 등에 의해 대상마을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마을이

6) 자료 : 충남연구원 ‘전략과제연구 2015-11’를 바탕으로 재정리

존재하게 되고, 선정된 마을은 국민의 세금으로 상대적인 혜택을 받은 대신에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성과가 발생할 경우 그 성과의 일정부분을 다시 사회에 환원(예로, 상대적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마을을 멘토링하고 동일한 기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민간영역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기금을 마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표 5-7〉 민간영역의 마을만들기 주도 확대 개요

구 분	내 용
마을만들기 참여 주체의 확대 및 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주민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도시민, 외국관광객 등으로 마을만들기 참여주체 확대 - 농어촌마을이라는 공간을 초월하여 마을 및 지역 공동체, 지역 사회, 도시-농촌, 생산자-소비자의 범위까지 확대 - 다양한 영역의 마을만들기 주체를 조직화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발전을 도모 - 농어촌의 문제와 발전을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마을만들기 추진
민간영역의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영역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상호 Win-Win 효과 극대화 도모 예) 농촌관광과 일반관광의 통합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상호 경쟁력 확보 - 공공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확충
마을 멘토링제도 도입 및 마을만들기 기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현장전문가(마을리더 등)나 마을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멘토링제도’ 도입 -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영역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 기금 마련 확대

(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 정착

지난 2016년 10월 11일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시군차원에서 9개 시군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인 정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행정과 전문가 등의 지원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인큐베이팅 하도록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독립적인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1차적으

로 중간지원조직의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치와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영역, 즉, 마을, 지역에서 농어촌마을 주민과 다양한 민간조직들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얼마나 지지하고 협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민간영역에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단순한 기존의 행정조직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사업비 확보 등의 단편적인 조직으로 여긴다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고, 이 보다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현장의 농어촌마을과 주민을 위한 민간영역의 조직이자 함께 만들어가고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조직으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한다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과 마을만들기 추진의 지속가능한 기반이 조기에 마련될 것이다.

〈표 5-8〉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 정착 개요

구 분	내 용
행정 및 전문가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인큐베이팅 -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치 - 중간지원조직의 자체적인 노력
민간영역의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직이 아닌 민간조직으로의 공감대 형성 - 민간영역이 주도하고 만들어나가는 조직으로의 발전 지지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추진된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통하여 육성된 마을의 실태를 점검하여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649개 마을이 육성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색깔있는마을만들기(현장포럼)과 통합하여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5,719백만 원이 투자되었고, 동기간 동안 현장포럼을 통해서 168개 마을에 총 1,317백만 원이 투자되었다. 또한, 우수마을지원 및 소규모 선행사업을 통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173개 마을에 4,375백만 원이 투자되었다.

2012년과 2013년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해 육성된 508개 마을에 대해 주민 의식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우선 대상마을은 실제 거주인구 100명 이하의 마을이 33.3%로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평균 58.9%로 과소화·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마을만들기와 같은 마을 활성화의 계기가 필요한 마을들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추진한 이 후, 99.0%의 마을이 마을 스스로의 자체 마을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도 82.2%에 달했다. 반면, 전혀 추진실적이 없는 마을은 0.4%(2개 마을)에 불과하여,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계기로 대부분의 마을에서 활성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마을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 마을변화에 대해 73.8%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변화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21.3%를 보였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4%가 만족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반면 불만족의 의견은 2.0%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마을이 향후 마을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원하고 있다(69.1%). 넷째,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제약이 되는 사항이나 애로사항으로는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31.6%)’을 가장 높게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부족(18.8%)’,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의지 부족(16.8%)’, ‘마을주민의 역량 및 경험 부족(14.1%)’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예산 마련과 지원 확대(31.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마을역량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관리(25.7%)’, ‘마을만들기 전담 공무원 배치(18.7%)’, ‘마을사업 등 마을만들기 정보의 One-stop 제공 전담부서 또는 창구의 마련(16.8%)’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해 육성된 마을중 12개 마을을 선정하여 현장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우선 마을만들기 추진이 우수한 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의 현장실태조사 결과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우수마을은 마을학교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가 우수 또는 매우 우수하였으며, 마을발전계획서의 테마도 체험소득, 경관환경, 문화복지 등 비교적 명확한 테마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된 반면, 비우수마을은 주민들의 참여도가 대체적으로 불량하고, 마을발전계획서의 테마 역시 대체적으로 단순한 농업소득이나 기초생활환경정비 등 숙원사업에 맞춰 작성이 되었다. 둘째, 마을만들기를 중도에 포기한 마을이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주민간의 갈등 및 불신’과 ‘즉각적인 후속사업의 부재’를 들고 있다. 셋째, 마을만들기 추진에 있어 정책건의 사항으로는 마을리더나 중요 인력에 대한 지원, ‘체계적인 마을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추진위원장과 이장 등의 추진주체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지침이나 매뉴얼 개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주민 의식조사와 현장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과로는 첫째, 그동안 소외되었던 과소·고령마을이 대상마을로 선정되고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마을발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 그리고 마을발전의 미래상을 갖도록 함으로써 마을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마을발전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동기부여 및 주민 참

여도 확대, 주민역량의 증가 등 마을의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 셋째, 마을사업의 경험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진입장벽을 허물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넷째,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대상마을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마을이 향후 마을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원하는 높은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농림축산식품부의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창조적 마을만들기의 단계별 추진체계 도입 등에 벤치마킹되고, 중앙정부의 마을사업 선정과 국비확보에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타시도 등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추진에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과 시군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을 성과로 들 수 있다.

한편,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과와 함께 향후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는 첫째,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마을의 인적자원 부족하다는 점과 대부분의 마을 이장 또는 추진위원장 등의 마을 리더가 보수가 없는 희생과 봉사로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주민 갈등의 문제는 마을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고, 마을만들기 추진의 제약요인으로 여전히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의지 부족, 마을주민의 역량 및 경험 부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마을만들기 추진 당시에는 참여주민의 마을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이후 바로 후속사업이 없음으로 인하여 실망감이 커지고 이후 참여율 저조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있다. 넷째, 마을만들기의 궁극적인 목적을 과도하게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칫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이 소홀해지고 과도한 경쟁위주의 마을만들기로 퇴색될 우려가 있다. 다섯째, 마을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 처음부터 무조건 외부역량에 의존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내부역량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기존의 공공주도 하향식 개발방식을 답습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마을만들기의 취지를 퇴색시키게 된다. 여섯째, 충청남도의 마을만들기가 아직까지는 지자체의 정권 교체 또는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시군에서 충남도의 마을만들기 추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체계적인 마을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우선, 마을만들기 추진에 따라 ‘마을만들기 시작단계의 마을’, ‘마을만들기 추진중(또는 완료된) 마을’, ‘마을만들기 추진경험이 전무한 마을’ 등 3가지 역량 단계별 또는 마을 유형별 맞춤형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자원’, ‘역량’, ‘프로그램’의 3가지 측면에서 **실태파악을 진행하고 DB 구축을 통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관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농어촌마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농어촌마을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유형에 따라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로 구분하여 풀(Pool)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① 단계별 마을 인증제도 도입, ② 역량별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운영, ③ 마을발전계획 및 마을사업계획 등 마을계획 수립, ④ 마을사업 기회 제공 및 관리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마을사업 대부분이 사전평가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중간평가나 성과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마을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성과평가)**를 도입하고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대상마을의 합리적인 선정과 마을사업 성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어촌마을에 마을리더 및 인적자원의 유치가 필요하다.

농어촌마을은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적자원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안정정인 리더 및 인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선 **마을이장, 추진위원장 등 마을리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마을이장 또는 추진위원장 등 마을사업 리더에 대해 활동비나 역할수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리더의 활동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예산마련을 통해 지원하는 **‘사무장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을사업 리더(CEI) 공모제도’**를 도입하여 출향인이나 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을

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자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마을사업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 리더(CEO)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귀농·귀촌인 등을 마을주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과 사고를 이해하려 노력함과 동시에 마을에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귀농귀촌 인큐베이팅, 빈집과 휴경지 등 주택 및 토지(농지 등) 제공 또는 알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과 마을주민의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시군이나 지역의 자체적인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군자체적인 예산확보 및 운용**을 통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고, 시·군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시·군 행정시스템 개편**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과 동시에 시군 자체적인 마을만들기 테마와 목표를 설정하여 **차별화된 마을만들기 모형을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민간영역 스스로의 역량강화와 함께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민간영역의 마을만들기 주도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 참여주체의 범주를 확대**하여, 농어촌의 문제와 발전을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마을만들기가 되도록 하고, **민간영역의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영역별 주체의 조직화와 함께 다양한 영역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상호 Win-Win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여 공공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그리고 침체된 마을이나 마을만들기를 새로 시작하는 마을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현장전문가(마을리더 등)나 마을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멘토링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영역에서 자체적인 마을만들기 기금을 마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인 정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행정과 전문가 등의 지원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인큐베이팅** 하도록 하고,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현장의 농어촌마을과 주민을 위한 민간영역의 조직이자 함께 만들어가고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조직으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한다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과 마을만들기 추진의 지속가능한 기반이 조기에 마련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가 지닌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마을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를 통해 2012년과 2013년에 육성된 마을로 한정시켜 진행하였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는 2012년을 시작으로 2016년 올해도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5년째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의 범위를 2012년과 2013년에 육성된 마을로 한정하였고, 더욱이 현장 실태조사에서는 12개 마을로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주민 의식조사와 현장 실태조사에 있어 가능한 다양한 마을 주민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508개의 모든 마을에 대해 마을리더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셋째, 마을만들기의 정성적인 성과를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을만들기의 성과는 정량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의 주도로 마을발전을 견인하는 내발적 발전에 대한 의식과 역량부분이고, 실제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표준화된 수치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넷째,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과와 문제점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일수도 있다. 이상적인 마을만들기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다년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제 5년차가 진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고용광, 2014, 자치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비교연구: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6집 2호: 131-156.
- 구자인, 2007, 주민주도 상향식의 농촌 마을 만들기: 전라북도 진안군의 경험, <도시와 진보> 02 (통권84호): 55-68.
- 김도희·하상근, 2013, 울산광역시 남구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추진실태분석에 따른 성공요인과 정책적 효과 분석: 지역재생을 위한 '지붕 없는 미술관' 신화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01-830.
- 김정희, 2015, 굿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대도시의 주민참여행정 비교연구: 부산시와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제18권 제4호: 135-170.
- 도선봉·신창훈, 2009, 마을만들기 실행주체별 전략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제34집2호: 63-83.
- 문중화·장준호, 201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 안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논문집> 제37권 제1호: 75-87.
-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제23권 1호: 7-43.
- 심익섭·심화섭, 2016, 마을만들기 연구 경향의 분석과 과제, <국가정책연구>제30권 제1호: 29-47.
- 이왕기·정승현·지남석, 2013,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활동유형 및 특성 도출, <국토지리학회지> 제47권 4호: 427-442.
- 조영재, 2013, 2012년도 마을만들기 참여주민 의식 변화 및 성과 분석,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연구 2013-047
- 조영재, 2014, 2013년도 마을만들기 참여주민 의식 변화 및 성과 분석,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연구 2014-096
- 조영재·윤정미·조은정, 2011, 충청남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의 추진과제, <열린충남> 가을호: 13-25.
- 조영재·이관률·윤정미·조은정·이영옥·오형은, 2011, 충청남도 희망 농어촌마을 만들기의 추진모형 및 실천전략, 충남연구원 전략연구 2011-04

조영재 외, 2015,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 충남 농어촌 마을의 실태 -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대상마을을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전략연구 2015-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적 지원 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4-38.

한승욱, 2013, 부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1-35.

허남혁·김종수, 2011, 연대와 협동의 유럽 마을만들기, <열린충남> 가을호: 78-86.

※ 부록 : 주민의식조사표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일련번호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주민의식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3농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주민주도의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충남의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2012년과 2013년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에 참여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의식 및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질문에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내용은 통계자료 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2016년 5월

충남연구원장

※ 문의 :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조영재 / 041-840-1202 / choyj@cni.re.kr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만 세
주 소	시/군 읍/면 리		
직 업	① 농어업 ② 상업 ③ 서비스업 ④ 주부 ⑤ 무직 ⑥ 기타 :		
역 할	① 추진위원(장) ② 이장 ③ 청년회장 ④ 부녀회장 ⑤ 새마을지도자 ⑥ 영농후계자 ⑦ 노인회장 ⑧ 일반주민 ⑨ 기타 :		
귀농귀촌 여부	① 마을 원주민 ② 귀농(어)인 ③ 귀촌인 ④ 마을 외지인		
마을거주 기간	① 5년 이하 ② 5~10년 ③ 10~20년 ④ 20~30년 ⑤ 30년 이상		

☐ 마을 일반현황 및 마을만들기 인지도

1.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행정리)의 실제 거주 인구, 가구수, 65세 이상 인구수는?

▷ 실제 거주 인구 : _____ 명

▷ 실제 거주 가구수 : _____ 호

▷ 실제 거주 65세 이상 인구 : _____ 명

2.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행정리)의 인구규모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① 급속히 감소 ② 서서히 감소 ③ 현재규모 유지 ④ 서서히 증가 ⑤ 급속히 증가

3. 귀하는 2012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이하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음 ② 약간 알고 있음 ③ 전혀 모르고 있음

3-1.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귀하의 마을에서 마을학교 운영되고 마을발전계획이 수립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음 ② 약간 알고 있음 ③ 전혀 모르고 있음

3-2. 귀하는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②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③ 약간 참여하였음 ④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

☐ 마을만들기 추진 경위 및 마을의 변화

4.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 현재까지 마을에서 추진된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리더교육, 현장포럼 등 포함)
- ② 공공보조 없는 마을자체사업 (꽃길조성, 마을안길정비 등 주민주도 마을가꾸기 포함)
- ③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보조사업 (소규모 선행사업, 인센티브사업 등 포함)
- ④ 1억 원 ~ 5억 원의 중규모 공공보조사업
- ⑤ 5억 원 초과의 대규모 공공보조사업
- ⑥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음
- ⑦ 기타 : _____

4-1. 외부지원 없이 마을 스스로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꽃길조성 및 경관식재 ② 마을안길 정비 ③ 담장정비 또는 벽화 조성
④ 공동시설 정비 ⑤ 공동시설 신축 ⑥ 복지사업 추진(노인급식, 건강교실 등)
⑦ 소득사업의 추진(농산물 가공 등) ⑧ 기타 : _____

4-2. 귀하의 마을에서는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에도 리더 및 주민교육 등의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가 이루어졌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5. 귀하는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수립된 마을발전계획서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음 ② 약간 알고 있음 ③ 전혀 모르고 있음

5-1. 마을발전계획서의 내용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실현되고 있음 ② 잘 실현되고 있음 ③ 보통임
④ 실현되지 않고 있음 ⑤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음

5-2. 마을발전계획서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계획서의 내용이 마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실현되기 어려움
② 마을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 부족
③ 마을주민의 역량 부족
④ 공공의 지원(사업예산, 보조금 등) 부족
⑤ 시간의 부족 (향후 실현될 것임)
⑥ 기타 : _____

6.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 이후 전반적으로 마을이 어떻게 변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됨 ② 긍정적으로 변화됨 ③ 변화되지 않음
④ 부정적으로 변화됨 ⑤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됨

6-1. 마을발전에 대한 마을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의식은 어떻게 변화 되었습니까?

- ①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됨 ② 긍정적으로 변화됨 ③ 변화되지 않음
④ 부정적으로 변화됨 ⑤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됨

6-2. 마을발전에 대한 마을주민의 단합과 참여도는 어떻게 변화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높아짐 ② 높아짐 ③ 변화되지 않음 ④ 낮아짐 ⑤ 매우 낮아짐

6-3. 마을발전을 위한 마을주민의 역량은 어떻게 변화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높아짐 ② 높아짐 ③ 변화되지 않음 ④ 낮아짐 ⑤ 매우 낮아짐

7. 충청남도 마을만들기가 마을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됨 ② 약간 도움이 됨 ③ 보통임
④ 도움이 안 됨 ⑤ 전혀 도움이 안 됨

8. 귀하의 마을에서 마을사업 등 마을만들기 추진에 가장 제약이 되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우수한 리더 및 인적자원의 부재 ②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의 부족
③ 마을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의지 부족 ④ 마을주민간 갈등 또는 협력 부족
⑤ 마을주민의 역량 및 경험 부족 ⑥ 행정의 지속적 관심 및 지원 부족
⑦ 기타 : _____

□ 향후 계획 및 정책 과제

9. 향후 귀하의 마을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활성화될 것임 ② 활성화될 것임 ③ 변화 없을 것임
④ 침체될 것임 ⑤ 매우 침체될 것임

10. 향후 귀하의 마을에서는 마을사업 등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0-1.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면 그 주된 테마(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기초생활환경 정비 ② 문화·복지여건의 개선 ③ 마을경관 및 환경의 정비
④ 소득사업의 추진(농업소득 관련) ⑤ 농촌체험·관광의 추진 ⑥ 주민역량강화
⑦ 기타 : _____

11. 향후 귀하의 마을 활성화를 위해 마을주민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음
②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미약하고 무엇보다 공공의 지원이 우선 필요함
③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이 함께 필요함
④ 외부의 도움보다는 마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우선 키워야 함
⑤ 기타 : _____

12. 현재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의 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1. 만족 또는 불만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마을의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등을 통한 마을주민의 의식개혁 및 역량강화
② 마을주민의 참여 및 단합(갈등해소 등)
③ 마을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마을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④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
⑤ 행정(도청, 시·군청, 읍면사무소 등)의 지속적인 지원 및 체계적인 마을 관리
⑥ 마을과 행정을 연결하고 중간에서 마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⑦ 기타 : _____

13-1. 특히, 행정의 역할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마을역량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관리
②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예산 마련 및 지원 확대
③ 마을만들기 전담 공무원 배치 (찾은 인사이동 지양)
④ 마을사업 등 마을만들기 정보의 One-stop 제공 전담부서 또는 창구의 마련
⑤ 지자체장(시·군 및 도의원 포함)의 관심 및 담당 공무원의 의지 확대
⑥ 기타 : _____

14. 마을만들기 추진에 있어 마을과 행정을 연결하고 중간에서 마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전혀 불필요

14-1. 설립 필요 또는 불필요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4-2.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한다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다양한 마을사업 관련 정보제공 (One Stop 창구역할)
- ②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진단 및 컨설팅
- ③ 마을발전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수립 지원
- ④ 마을 및 지역의 다양한 민간조직의 연계·협력 및 조직화 유도
- ⑤ 지역차원의 다양한 마을사업의 총괄 및 통합 운영 지원
- ⑥ 마을자원 조사, 마을만들기 추진 실태 모니터링, DB구축 및 관리
- ⑦ 사업아이템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마을지원 연구
- ⑧ 마을만들기 관련 인적자원의 발굴 및 육성
- ⑨ 기타 : _____

14-3.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한다면 운영관리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행정)이 운영관리 하여야 함
- ② 처음에는 공공(행정)이 운영관리 하다가 차차 민간으로 이전하여야 함
- ③ 처음에는 민간이 운영관리 하다가 차차 공공(행정)으로 이전하여야 함
- ④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이 운영관리 하여야 함

15.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추진에 관하여 건의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수고 하셨습니다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조영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략연구 2016-11 ·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마을의 실태 및 정책 과제

글쓴이 · 조영재, 박경철, 김종화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6년 12월 31일 / 발행 · 2016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02(농촌 · 농업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352-0 03350

<http://www.cni.re.kr>

© 2016.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